

제2139호

대표전화: 02)799-2600 / 구독: 02)799-2684

박영선 장관, 중기부 북콘서트서 한 말은... 10



김도진 기업은행장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 동참 21



코스피(15일) **2092.78** (+10.94P)
코스닥 **729.60** (+19.44P)
환율(달러당 원화) **1188.6** (-0.80원)
금리(국고채 3년물) **1.710%** (-0.001%p)

<LG그룹> <두산그룹> <한진그룹>

구광모·박정원·조원태 총수 지정...재계 세대교체 가속

공정위, 자산 5兆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59개 지정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됐다. ▶관련기사 3면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중대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대기업집단)' 지정 발표를 통해 기존 동일인의 권위로 변경 사유가 발생한 LG·두산·한진의 새 동일인으로 재벌 3·4세인 세 사람을 새로 지정했다. 지난해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롯데 신동빈 회장에 이어 '정부 공인' 총수가 올해도 대거 물갈이되면서 재계의 '세대교체'

현대차 총수 정몽구 회장 유지
카카오·HDC 상호출자제한
애경·다우키움 공시대상 편입

가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김성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구광모 회장의 경우 LG그룹의 지주회사인 (주)LG를 지배하고 있다는 점과 그룹 최대 투자 결정자인 점을 반영해 동일인으로 지정했고, 박정원 회장도 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고 판단해 동일인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조원태 회장에 대해서는 "한진의 지



구광모 LG 회장



박정원 두산 회장



조원태 한진 회장

주회사인 한진칼의 최대주주는 강성부펀드(지분 14.98%)지만 고 조양호 전 회장 등 한진 일가의 지분을 합치면 강성부펀드보다 많다"며 "조원태 회장의 한진칼 지분(2.34%)이 낮아도 투자 결정 등 업무집행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현대차그룹의 경영 전면에 나선 정 의선

총괄수석부회장은 이번 동일인 지정 명단에서 빠졌다. 재계에서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건강 이상설이 한때 나온 데다 동일인

자필 서명 제출이 늦어져 정 의선 부회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달 8일 현대차그룹이 정몽구 회장의 자필 서명을 제출했고, 정 회장의 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기존 동일인 지위를 유지했다.

김 국장은 "작년 이재용 부회장을 시작

으로 올해 구광모·박정원·조원태 회장이 대거 동일인으로 지정되면서 오너 3·4세로 그룹 총수 세대교체가 본격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애경과 다우키움, 카카오와 HDC가 각각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59개)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34개)에 새로 지정됐다.

애경과 다우키움에는 기업집단 현황 공시,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주식 소유 현황 신고 등의 의무가 부과되고 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제를 적용받는다. 카카오와 HDC는 해당 규제 외에 계열사 간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재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받게 된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동남아에 선보인 삼성 'QLED 8K' 삼성전자는 15일(현지시간) 개막해 17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는 디스플레이 전문 전시회 '동남아 인포콤 2019'에 참가해 퀀텀닷 소재 기술과 8K 고해상도를 접목, 최고의 화질을 구현한 상업용 'QLED 8K 사이니지'를 선보인다. 삼성전자 모델들이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관련기사 9면

효성 '안양공장 부지' 자체 개발 가닥 '제2 평촌 스마트 스퀘어'로 만드나

25만㎡ 규모...상반기 중 용역 발주

효성이 경기 안양공장 부지를 자체 개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내년까지 사업성 검토를 마친 뒤 개발을 결정한다는 구상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효성은 이달 초순 진행한 기업설명회(NDR)에서 안양공장 부지 약 25만㎡(7만5000평)를 자체 개발하기 위해 상반기 내에 용역을 발주하고 내년까지 사업성과 개발 타당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안양공장이 위치가 좋은 만큼 내년까지 개발 타당성을 검토하는 건 맞다"라면서 "다만 안양시와도 협의해야 하는 등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안양공장 부지는 인테리어 공장, 연구소, 연수원 등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상당 부분이 녹지로 장부가만 4781억 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효성이 이를 개발한다면 '하든벨'로서 부동산 가치가 부각될 수 있다고 기대해왔다.

효성은 이번 공장 부지 개발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대한전선의 '평촌 스마트스퀘어' 개발 사례를 참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효성 안양공장 위치



대한전선은 2012년 평촌공장이 충남 당진으로 이전하자 약 22만5000㎡(7만7137평) 규모의 부지를 평촌 스마트스퀘어로 개발했다. 당시 안양시와 협의해 사업비만 1조 원에 달하는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진행한 대한전선은 기존 공장 부지에 최신 산업 트렌드를 반영한 대규모 첨단산업단지 조성하면서 동시에 주거단지 등을 개발해 지역발전을 이끌었다.

회사 관계자는 "사업 타당성이 있고 개발이 확정된다면 방향성에 따라 인테리어 공장을 다른 사업부로 넘길 수 있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안전자산이 좋아"...금 거래 급증

KRX금시장 거래량, 3월의 2.5배
엔화·美 채권 실물자산도 인기

안전자산에 자금이 몰리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 격화로 대외 리스크가 고조된 상황에서 국내 정치 이슈까지 맞물리며 금융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8일 선진국 주식펀드는 8주 연속 자금이 순유출됐고 선진국 채권펀드에는 16주 연속 순유입됐다. 이 기간 국내 채권형 펀드에도 8200억 원의 자금이 순유입됐다. G2 간 대결로 글로벌 주식시장에 위험회피 성향이 짙어진 데 따른 것이라 분석된다. 금, 일본 엔화, 미국 국채 등 실물자산의

인기도 치솟고 있다. 대표적 안전자산으로 손꼽히는 엔화의 가치는 크게 상승하며 이달 들어 달러화 대비 1.5%, 원화 대비 3% 이상 상승했다. 또 다른 안전자산인 미국채 2년물 금리는 최근 정책금리 하단(RRP, 2.25%)을 하회했으며, 10년물 금리는 상단(IOER, 2.35%) 부근까지 떨어졌다. 금의 경우 가격 상승과 함께 거래량도 급증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KRX 금시장의 일평균 거래량(14일 기준)은 42.9kg으로 4월의 22.0kg보다 94.6% 증가했다. 3월의 17.2kg과 비교하면 2.5배로 늘어난 수준이다. 특히 금의 경우 정치권을 중심으로 리디노미네이션(화폐단위 변경)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선영 기자 moon@

결국 서민 주머니·혈세로 막은 버스 파업

대란 피했지만 잘못된 선례 남겨
버스료·임금인상, 준공영제 도입
1년 손놓고 있다 국민에 부담 전가

서울, 경기 등 전국 버스 노사의 극적인 타협으로 우려했던 버스 파업에 따른 교통 대란은 피했다. 그러나 노사 합의의 핵심인 버스요금 및 임금 인상과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 등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은 결국 국민 혈세와 서민 주머니로 막을 수밖에 없게 됐다. 정부는 주52시간제 도입 이후 1년이 넘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뒷집만 지고 있다. 파업이 임박해서야 모든 부담을 국민에 떠넘겼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7개 시도에서 노사 협상이 타결됐거나 노조의 파업 보류로 이날 버스 파업은 없었다. 대란은 피했지만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국민의 발을 불모로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한 버스노조에 정부와 지자체가 굴복해 3년간 적게는 3.6%(서울)에서 많게는 20%(인

전국버스노사협상

- 타결 파업 보류
- 6월 협상 예정
- 서울 • 임금 3.6% 인상 • 정년 61세~63세
- 인천 • 3년간 임금 20% 인상 • 정년 61세~63세
- 광주 • 호봉별 기준 시급 4% 인상 • 임금 총액 6.4% 인상
- 전남 • 임금 보전 • 근무시간 단축(240~208)
- 대구 • 호봉별 기준 시급 4% 인상 • 정년 61세~63세
- 울산 • 임금 7% 인상 • 정년 61세~63세
- 부산 • 임금 3.9% 인상
- 경남 • 임금 4% 인상 • 준공영제 시행 후 정년 60세~63세



전)의 임금을 올려주기로 했다. 서울은 현재 61세인 정년을 2021년까지 63세로 늘리기로 했다.

버스요금도 줄줄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경기도는 일반 시내버스 요금을 1250원에서 1450원으로 200원 올리고 좌석버스(광역버스) 요금은 2400원에서 2800원으로 400원 올린다. 충남과 충북, 세종, 경남 등도 올해 안에 버스요금 인상

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번엔 피했지만 추후 인상 가능성은 열려 있다. 결국 서민 부담만 가중된 것이다.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 등으로 조단위의 국민 혈세 투입도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향후 연구용역을 통해 광역버스의 준공영제 시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구체적 재정 소요는 이를 토대로 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5월 한국교통연구원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준공영제 월급을 전국으로 확대하면 1조3433억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향후 3기 신도시 등에도 광역버스를 투입할 예정이어서 비용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성급히 내놓은 준공영제 확대가 버스회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며 "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도 합리적 교통시스템과 건전한 재정을 확보한 영국 런던과 브라질 쿠리치바시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GS그룹 회장>

허창수 “변화를 사업 기회로... ‘혁신 DNA’ 뿌리내리자”

제10회 ‘GS 밸류 크리에이션 포럼’ 개최

허창수 GS그룹 회장이 혁신적인 신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하는 가운데 변화를 빠르게 포착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변화와 혁신이 일회성이거나 소수의 참여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조직 전반에 도전과 혁신의 DNA가 뿌리내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허 회장은 15일 서울 강남구 논현로 GS타워에서 주요 계열사 CEO 및 전략·기획·혁신·기술담당 등 임직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GS 밸류 크리에이션 포럼(Value Creation Forum)’에서 이같이 주문했다.

GS 밸류 크리에이션 포럼은 계열사들의 경영혁신 성공사례 공유를 통해 혁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룹 내에 변화와 혁신의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GS 혁신의 산실(産室)로 2010년부터 매년 개최됐다.

이날 허 회장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공유경제 등 혁신적 신기술과 새로운

시장 변화 정확히 읽어내고 조직 문화 과감하게 바꿔야

그룹 임직원 300여 명 참석 주요 계열사 혁신사례 공유

비즈니스 모델이 속속 등장해 세상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며 “세상의 변화를 잘 읽어 이를 사업 기회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변화의 속도가 빠를수록 시장의 움직임과 변화를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고객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시장에서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잘 살펴서 그 변화의 맥락을 짚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허 회장은 “시장의 작은 변화에도 관심을 갖고 항상 눈과 귀를 열어두



허창수(오른쪽부터 다섯 번째) GS 회장이 15일 서울 강남구 논현로 GS타워에서 열린 '2019 GS 밸류 크리에이션 포럼'에서 혁신 사례 발표 임직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GS

어야 하며 나아가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기 보다 적극적으로 배우고 활용해 우리의 역량으로 내재화해야 한다”며 “그러야만,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아 미래의 성장동력을 만들고, 고객과 시장이 인정하는 GS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한 허 회장은 혁신 도전과 혁신의 ‘일상화’를 주문했다. 그는 “일상적인 프로세

스부터 회사 전체의 조직문화까지 끊임없이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하며 우리에게 익숙한 시스템이라도 새로운 환경에 맞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며 “도전과 혁신의 DNA를 조직 전반에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GS 밸류 크리에이션 포럼’에서는 GS칼텍스, GS리테일, GS홈쇼핑,

GS EPS, GS E&R, GS파워, GS글로벌, GS건설 등 주요 계열사들이 9가지 주제에 대한 혁신사례를 공유했다.

이 가운데 GS칼텍스는 ‘고 수익성 미주산(美州産) 원유 도입 확대를 통한 수익성 향상’ 주제 발표를 통해, 상대적으로 기존 원유 대비 경제성이 있으나 불순물 함유량이 높아 도입에 제약이 있었던 미주산 원유에 불순물 제거기술을 도입한 사례를 소개했다. GS리테일은 GS의 이니셜을 활용한 ‘Green Save’라는 친환경 디자인을 개발해 종이컵에 표기하는 등 환경을 최우선시하고 자체 디자인 경쟁력도 높이는 경영을 펼친 결과, 새로운 디자인이 반영된 생수, 아이스 음료, 원두커피 등 PB 브랜드 상품 매출이 1조3000억 원에 이르는 등 큰 성과를 보였다고 소개했다. GS홈쇼핑은 ‘자기주도적 학습강화를 통한 HR개선’ 사례를 발표하고, 지난해 3월부터 진행된 ‘몽클(몽치면 클래스가 열린다)’을 통해 4차 산업 시대에 맞는 인재 육성을 위한 유연한 조직 문화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 eugene@

하나금융, 외환銀 매각 관련 1.6兆 소송 론스타에 ‘완승’

하나금융지주가 미국계 사모펀드(PEF) 론스타가 국제중재재판소(ICA)에 제기한 중재신청에서 전부 승소했다.

하나금융은 국제상공회의소(이하 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가 이같은 내용의 판정문을 보내왔다고 15일 밝혔다. 론스타는 2016년 8월 하나금융을 상대로 5억 달러(약 5600억 원) 규모의 중재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손해배상금과 이자 및 원천징수금액을 포함해 청구금액을 14억430만 달러(약 1조6100억 원)로 조정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 따라 하나금융은 론스타가 요구한 손해배상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론스타-한국정부 ISD 전초전 한국정부 승소 가능성 높아져 ISD 결과 이르면 상반기 안에

앞서 론스타는 2016년 8월 국제중재재판소에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 협상 과정에서 금융당국을 빙자하면서 매각가격을 낮췄다”며 중재를 신청했다.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한국 정부 승인이 지연됐음에도 하나금융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등 계약을 위반해 손해를 봤다는 주장이었다.

하나금융은 2010년 11월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 51.02% (3억2904만 주)를 주당 1만4250원(총 4조6888억 원)에 거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금융위원회는 1년 2개월이 지난 2012년 1월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했다. 그 사이 몇 차례 가격 조정이 이뤄졌고, 2012년 12월 최종 매각대금은 처음보다 7732억 원 줄어든 3조9156억 원으로 결정됐다.

이번 중재 결과는 론스타가 2012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5조3000억 원 규모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이하 ISD)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예고편 성격을 띤

다. 이번 ICC 중재에서 하나금융이 승소하면서, 매수 당사자였던 하나금융이 가격을 낮추기 위해 금융당국을 빙자했다는 론스타의 주장은 힘을 잃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론스타는 ISD를 내면서 한국 정부의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과세와 매각 시점 지연, 가격 인하 압박 등으로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에는 ISD를, 하나금융에는 ICC 중재를 청구해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ISD 결과도 이르면 올해 상반기 안에 나올 전망이다. 하나금융은 2012년 2월 론스타가 보유했던 외환은행 지분 3억

하나금융지주-론스타 소송 일지

2010년	11월	하나금융, 론스타 보유 외환은행 지분 51.02% 거래 계약 체결
2012년	1월	금융위원회, 하나금융 외환은행 인수 승인
2012년	12월	최종 매각 대금 3조9156억 원 결정
2016년	8월	론스타, 국제중재재판소 중재 신청
2019년	5월	하나금융, 국제중재재판소 중재 전부 승소

2904만 주(51.02%)를 넘겨받았다. 당시 지급액은 계약금액 3조9156억 원 가운데 국제청이 원천징수하기로 한 세금(3916억 원)과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을 담보로 받아간 대출금(1조5000억 원)을 제외한 2조240억 원이다.

나경민 기자 contest@

(광고심의번호)2019-1480-0000000 | 본문의 내용이 있을 수 있으나 정부 및 기타 공공기관에서 승인한 것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의약품 부작용 신고를 생활화 합시다. ■ 유한양행 소비자 상담실 080-024-1188(수신자 요금부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가정의 달 5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유한양행

눈의 피로부터 육체 피로까지
피로회복의 더블효과
베콤씨 정

NEW
휴대가 간편한
PTP포장 출시

육체피로 | 신경통 | 눈의피로 | 기마·주근깨

빛은 줄었지만... 대기업 당기순익 4년 만에 내리막

대기업집단 재무상태 분석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의 재무상태가 개선됐지만 수익성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위 대기업집단으로의 자산 쏠림 현상 등 양극화 현상이 더 심화됐다.

◇부채비율 감소 = 공정거래위원회가 15일 내놓은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지정' 자료에 따르면 올해 59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은 67.8%로 전년(71.2%)보다 3.4% 포인트(P) 감소했다.

대우조선해양(88.6%P), 중흥건설(30.7%P), 금호석유화학(29.4%P) 등의 부채비율이 많이 줄었다. 대우조선해양은 차입금 감소가 부채율 감소의 주요인이었고, 중흥건설은 부채비율이 높았던 계열사들의 독립, 금호석유화학은 계열사 영업실적 개선이 작용했다.

반면 한국투자금융(35.9%P), 한진(33.6%P), 에스오일(28.6%P)은 부채비율이 많이 증가했다.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34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은 67.3%로 전년보다 2.2%P 하락했다.

◇매출 늘었지만 수익성은 하락 =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매출액은 1422조 원으로 전년(1359조5000억 원) 대비 4.5% 증가했다. 작년 반도체 호황과 유가 상승으로 SK(26조100억 원 ↑)와 삼성(9조6000억

부채율 지난해보다 3.4%P 감소 실적부진에 수익성은 7.6% 하락

SK 5.3兆 벌 때 현대중 5.4兆 손실 상위 34곳, 전체자산 90.5% 차지 매출·순익도 '상위집단 쏠림현상'

원 ↑)의 매출이 많이 늘었다. 상호출자제한집단의 총 매출액(1305조 원)은 전년 대비 78조1000억 원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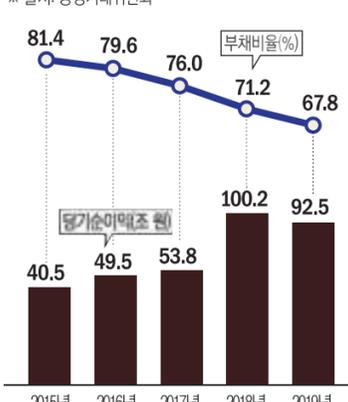
다만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당기순이익은 작년 100조200억 원에서 92조5000억 원으로 7.6% 감소했다. SK가 5조3000억 원, 삼성은 4조1000억 원, 효성이 2조7000억 원 증가했지만 현대중공업(-5조4000억 원), LG(-3조7000억 원), 현대차(-3조5000억 원) 등은 많이 줄었다.

현대중공업은 원자재 가격 인상, LG는 LCD 공급 과잉과 휴대폰 실적 부진 등에 따른 수익이 악화됐고, 현대차는 원화 강세에 따른 환차손 및 철강 등 주요 원재료 가격 상승이 작용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총당기순이익은 85조7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6.3% 줄었다.

◇자산 증가 =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은 전년보다 3.7%(73조 원) 늘어난 239조7000억 원을 기록했다. HDC(자산 10조6000억 원)가 작년 46위에서 올해 33위로 13계단 상승했고, 카카오(10조6000억 원)는 39위에서 32위로, 하림(11조

대기업집단 부채비율·당기순이익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 59곳, 2019년 기준)



9000억 원)은 작년 32위에서 올해 26위로 올랐다. 올해 자산총액 기준 재계 서열은 삼성(414조5000억 원), 현대자동차(223조5000억 원), SK(218조 원), LG(129조6000억 원), 롯데(115조3000억 원), 포스코(78조3000억 원) 순이었다.

자산이 많은 거대 기업집단에 자산이 몰리는 현상은 더 심화됐다. 전체 공시대상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단위: 개, 조 원, 2019년 5월 기준)

기업집단명	동일인(총수)	소속회사수	자산총액(공정자산)	기업집단명	동일인(총수)	소속회사수	자산총액
삼성	이재용	62	414.5	대림	이준용	26	18.0
현대자동차	정몽구	53	223.5	미래에셋대우	박현주	38	16.9
에스케이	최태원	111	218.0	에스오일	에스오일	3	16.3
엘지	구광모	75	129.6	현대백화점	정지선	28	15.3
롯데	신동빈	95	115.3	효성	조석래	57	13.5
포스코	포스코	35	78.3	한국투자금융	김남구	30	13.3
한화	김승연	75	65.6	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5	13.0
지에스	허창수	64	62.9	영풍	정형진	24	12.0
농협	농협	44	59.2	하림	김홍국	53	11.9
현대중공업	정몽준	31	54.8	고보생명보험	신창재	14	11.7
신세계	이명희	40	36.4	금호아시아나	박삼구	27	11.4
케이티	케이티	43	34.0	케이티엔지	케이티엔지	11	11.2
한진	조원태	32	31.7	코오롱	이우열	41	10.7
씨제이	이재현	75	31.1	오씨아이	이우열	19	10.7
두산	박정원	23	28.5	카카오	김범수	71	10.6
부영	이중근	24	22.8	에이치디씨	정몽규	24	10.6
엘에스	구자홍	53	22.6	케이씨씨	정몽진	15	10.4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DIGITAL EASY LIFE

쉽지! 편하지! 편리! KB국민카드는 DIGITAL EASY!

* KB 국민카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카카오 계열회사수: 71개
자산총액(공정자산) 10조 6030억 원

카카오 경영성과 (단위: 10억 원)

비율	비금용보험회사	전체회사
매출액	2,306	2,380
당기순이익	89	2,380

카카오 재무현황 (단위: 10억 원)

비율	비금용보험회사	전체회사
자산총액(A)	10,470	10,880
자본총액(B)	7,613	7,747
부채총액(C)	2,856	3,134
부채비율(C/B)	37.52	40.45

카카오, IT업계 유일 '대기업' 지정 "춤춤해진 규제, 투명경영으로 돌파"

카카오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 이번 지정으로 인해 카카오는 IT업계 처음으로 대기업집단에 포함되는 기업이 됐다.

15일 공정위는 카카오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했다. 카카오의 올해 자산총액은 10조6000억 원이다. 작년의 8조5000억 원에 비해 24.7% 증가했다. 재계 순위도 지난해보다 7계단 뛰어 32위를 차지했다.

네이버(8조3000억 원)와 넥슨(7조9000억 원), 넷마블(5조5000억 원)은 자산 10조 원 미만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준대기업집단) 자리를 유지했다. 이들은 공시의무(기업집단 현황공시, 비상장사 주요사항 공시,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등을 적용받고 있다.

앞서카카오는 2016년에도 대기업집단에 이름을 올렸다. 당시 IT 기업을 일반 제조업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공평하다는 지적에 따라 자산 기준이 기존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상향됐고 카카오는 6개월 만에 대기업 지정에서 벗어난 바 있다.

카카오가 3년 만에 급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적극적인 M&A의 효과인 것으로 분

석된다. 카카오는 2016년 이후 M&A를 통해 몸집을 불려왔다. 특히 멜론과 카카오페이지, 카카오톡모빌리티, 카카오킴즈 등 모든 계열사가 고른 성과를 올리며 몸집 부풀리기에 힘을 보탰다.

다만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대기업에 지정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감시가 강화되는 만큼 IT업계에서의 활동에 제약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준대기업집단 규제에 더해 상호출자금지, 순환출자금지, 채무보증금지, 금융보험사의결권 제한 등이 추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소프트웨어와 모빌리티, 뱅크 등 사업 분야에서 각종 제약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대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해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후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투명한 경영을 이어 나갈 것"이라며 "국내 IT산업의 발전을 위한 투자 및 생태계 마련에 힘쓰며 사회적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15단 안재전 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장은 당시 엔플루토 등 5곳 계열사를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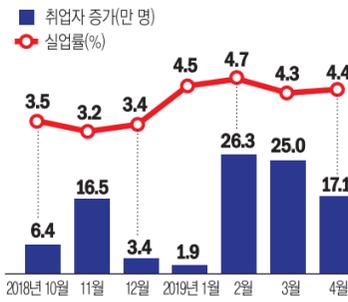
조성준 기자 tiatio@

경제 중추 40대가 무너진다...취업자 28년 만에 최대 감소

통계청 '4월 고용동향'

18.7만명 ↓ 고용률 0.8%p 급락
초단시간 취업자 36만명 증가
실업률 4.4%로 2000년 후 최대
“민간투자 활성화로 고용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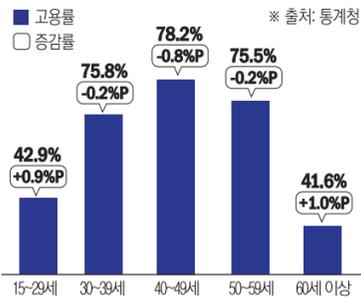
취업자 증가·실업률 추이(전년 동월 대비)



보면 지난해 취업자 수는 2703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7만1000명 늘었다. 2월(26만3000명), 3월(25만 명)보다 증가 폭은 축소됐지만, 3개월째 올해 취업자 증가 목표치를 웃돌았다. 산업별로는 숙박·음식점업 취업자가 3개월 연속 늘고 제조업 취업자 감소 폭이 전월 10만8000명에서 5만2000명으로 줄었다.

반면 연령대별 지표에선 긍정적인 면을

연령계층별 고용률 현황(전년 동월 대비)



찾아보기 어렵다. 청년층(15~29세)과 노인층(65세 이상)에서 취업자가 크게 늘었는데, 상당 부분은 재정이 투입된 공공 일자리 확대의 효과다. 취업시간대별로 1~17시간 초단시간 취업자가 178만1000명으로 36만2000명 급증한 게 이를 뒷받침한다. 초단시간 취업자는 4월 기준으로 1982년 이후 최대다. 청년·노인층 취업자 증가분을 제외하면 지난해 취업자 수는 7

만4000명 감소다.

특히 30·40대 취업자 감소가 심각하다. 30·40대는 전 연령대에서 고용률이 가장 높다. 우리 경제의 허리다. 두 연령대의 취업자는 각각 9만 명, 18만7000명 감소했다. 고용률은 0.2%p, 0.8%p 하락했다. 이 중 40대는 취업자 감소 폭이 인구 감소 폭(-14만9000명)을 상회했다. 기존 취업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실업자로 전환되고 있다는 의미다.

지난해 말 공공기관 맞춤형 일자리 공급, 올해 초 노인 일자리 사업 조기집행으로 고용지표는 개선됐지만, 시장은 1년 넘도록 악화일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청년 취업자는 8개월 연속 증가했으나, 핵심 계층인 30·40대는 감소하면서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토론했다.

줄어든 취업자의 일부는 실업자가 됐다. 지난해 실업자는 124만5000명으로 8만4000명 늘고, 실업률은 4.4%로 0.3%p 상승했다. 청년 실업률은 11.5%로 0.8%p 올랐다. 확장실업률인 고용보조지표3도 12.4%로 0.9%p, 청년층에선 25.2%로 1.8%p 상승했다. 4월 기준으로 실업자수와 실업률, 고용보조지표3은 지금과 같은 기준으로 통계가 작성된 2000년 이후 가장 높다.

청년층은 지방직공무원 원서접수기간 이동으로 경제활동참여율(경활률)이 1.5%p 급등하면서 실업자가 일시적으로 늘었지만, 30대와 50대는 경활률이 전년 동기과 비슷한 상황에서 실업자가 각각 1만3000명(0.3%p, 이하 실업률 등락), 2만3000명(0.3%p) 증가했다. 40대는 실업자가 2만 명(0.2%p) 줄었으나, 이는 실업자 중 일부가 비경제활동인구로 이탈한 결과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지난달 40대 취업자가 전년 동월보다 18만7000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1991년 12월(-25만9000명)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고용률도 78.2%로 0.8%p포인트(P) 급락했다. 30대(75.8%)에도 추월 당할 처지다. 노인 일자리를 비롯한 공공 일자리 확대로 전체 취업자 증가 폭은 2월부터 3개월째 목표치인 15만 명을 상회하고 있지만, 경제 허리인 40대가 무너지고 있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4월 고용동향'을



유영민(오른쪽 두 번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5일 서울 서초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열린 '바이오헬스 혁신 민관 공동가다히'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첫 번째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고 세 번째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연합뉴스

홍남기 “바이오헬스, ‘제2 반도체’ 육성 가능”

“2022년 세계시장 규모 10조 달러 전망... R·D·규제협력 등 지원책 곧 발표”

경제활력 대책회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바이오헬스 산업은 향후 연평균 5.4%씩 빠르게 성장해 2022년까지 세계시장 규모가 10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유망 산업”이라며 “앞으로 우리가 보유한 최첨단 정보통신기술(ICT)과 우수한 의료인력·병원 등 강점을 잘 살린다면 ‘제2의 반도체’와 같은 기간산업으로의 육성이 충분히 가능한 분야”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

린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추진방안’을 소개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연구개발(R·D), 규제협력, 마케팅 및 시장진입 지원 등에 역점을 둔 종합적인 혁신방안을 그동안 마련해왔다”며 “정책과제에 대한 논의를 거쳐 최종 대책을 마련, 조속히 확정·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5개 부처는 이날 오후 ‘바이오헬스 혁신 민관 공동 가다히’를 열었다. 간담회에

선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전략’, ‘혁신성장 확산을 위한 의로기기 분야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 방안’, ‘4차 산업혁명 기반 헬스케어 발전전략’ 등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성과도 소개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바이오헬스 벤처캐피털 투자는 2017년 3788억 원에서 지난해 8417억 원으로 늘었으며, 2016년 이후 33개 신약 후보물질 기술 수출로 약 10조 원의 수익이 창출됐다. 바이오헬스 산업 자리도 2013년 70만 명에서 지난해 87만 명으로 5년간 17만 명 늘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새 금융상황지수 제 역할 할까

실물경제 예측력 높인다더니
통화정책과 다르게 나타나
“참고지표로 쓰일지 의문”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새로운 금융상황지수(FCI, Financial Conditions Index)가 통화정책 결정을 위한 보조지표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과거 금융상황지수가 기준금리변경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통화정책 설명력을 높였던 데 반해, 새 금융상황지수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보여서다.

일부 전문가는 15일 새로운 금융상황지수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한 경제학부 교수는 “지표 구성을 줄이면 지수 자체의 투명성과 구성요소간 요인 파악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도 “기준금리 흐름에 후행성을 보였던 과거 금융상황지수와 달리 방향이 많이 바뀐 것 같다. 정책판단의 참고지표로 쓰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금융상황지수를 기준금리 흐름과 비교해 보면 금리 인상과 인하에 즉각 반응했던 과거 지수와는 다르다. 일례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2.0%까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지수에 따르면 금융상황은 마이너스(-)1을 훌쩍 넘겨 상당히 긴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이를 기반으로 통화정책을 결정했다면 기준금리를 제로(0) 수준까지 더 낮춰야 한다는 결론

이 나온다.

앞서 9일 한은은 구성 항목을 기존 50개에서 6개(실질단기금리, 실질실효환율, 실질주가, 실질주택가격, 기간스프레드, 리스크프리미엄)로 대폭 줄이고, 구성변수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분석방법을 변경한 새로운 금융상황지수를 발표했다.

이 같은 변경에 대해 한은은 지수 개발 이후 금융여건이 크게 변화한 데다, 기존 방식이 금융변수와 실물변수 간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개편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6개 구성항목은 통화정책 파급경로상 핵심변수라는 게 한은 측 설명이다. 또, 새로운 금융상황지수는 실물경제예측면에서 유용성이 높고, 금융상황 완화 시 총수요가 확장(국내총생산 격차(GDP갭) 상승)하며, 지수의 안정성도 높다고 평가했다.

금융상황지수란 통화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금융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필요성이 있어 만들어진 지수다. 이 수치가 0을 기준으로 높으면 완화적임을, 낮으면 긴축적임을 의미한다.

김남현 자본금융 전문기자 kimnh21c@

한국판 칸쿤·센토사 조성

전국 7개 권역 해양레저관광지로

전국을 7개 권역으로 나눠 해양레저관광거점으로 키우고 멕시코 칸쿤, 싱가포르를 7개 권역은 수도권(도시위락형마리나), 서해안권(해양문화·생태관광), 다도해권(섬·연안·어촌 연계 체험), 제주권(수중레저), 한려수도권(휴양·치유형 체류), 동남권(친수문화선도), 동해안권(해양레저스포츠) 등이

다. 이를 통해 2023년에 관광객을 1000만 명으로 확대하고 해양관광 분야에서 30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정규직 전환’ 공공 근로자 연봉 391만 원 ↑

공공부문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근로자의 연봉이 평균 391만 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연구원은 15일 공공부문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 1815명과 정규직 전환 기간 430곳을 대상으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자의 만족도 및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

사 결과를 보면 정규직 전환 이후 임금수준은 평균 2783만 원으로 전환 이전 2393만 원보다 391만 원(16.3%) 올랐다.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지침’에 따라 명절 상여금(52.8%), 복지 포인트(62.0%), 급식비(43.4%)가 반영됐다고 응답한 비중은 절반 정도였다. 일부 응답자는 교통비, 경조사 휴가, 병가 등도 추가

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임금이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정규직 전환 규모가 큰 3개 직종에 속하는 기관 406곳의 기간제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으로 1인당 평균 월급이 191만5066원에서 226만4591원으로 34만9525원(16.9%) 증가했다. 파견·용역 근로자도 정규직 전환으로 평균 월급이 180만5053원에서 206만2450원으로 25만7397원(15.6%) 늘었다.

세종=박은평 기자 pepe@

‘공수처법 반대’ 오신환 낙승... 패스트트랙 험로 예고

바른미래 새 원내대표 선출 예상 깨고 김성식에 완승 민주·야3당 공조에 ‘빨간불’ 선거법 등 국회 통과 불투명 ‘손학규 대표 퇴진’ 논란 예상

바른미래당 새 원내대표에 바른정당 출신 오신환 의원이 선출됐다.

오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당 출신 김성식 의원에 완승을 거뒀다. 오 원내대표는 앞으로 1년 동안 원내 3당인 바른미래당의 원내 정책을 진두지휘한다.

당초 당 안팎에서는 김 의원이 우세하다는 전망이 많았지만 결과는 오 의원의 낙승이었다. 오 원내대표는 개표가 시작된 지 1분 만에 과반인 13표를 얻어 승리를 확정 지었다.

오 원내대표가 예상 밖 낙승을 거둔 것은 바른정당계 외에 국민의당 출신 중 ‘안철수계’가 지지한 게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번 경선이 단순히 출신 정당 싸움을 넘어 ‘손학규 대표 체제’에 대한 재신임 성격을 띠면서 손 대표의 퇴진에 무게를 실은 공동창업주 유승민 의원과 안철수 전 의원이 합심한 것으로 분석된다. 선거법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 사보

임’을 놓고 손 대표와 두 계파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진 결과다.

오 원내대표가 새 원내 사령탑이 됨에 따라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비상이 걸렸다. 오 원내대표는 지난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안에 반대 의견을 표명해 강제 사보임 조치를 당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정견 발표에서도 “저는 수사권·기소권이 분리되지 않은 기형적 공수처를 반대했다”며 “공수처장과 차장, 검사 등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백해무익한 민주당 의원의 안은 통과돼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당장 선거법과 공수처 설치법 등을 고리로 한 민주당과 3야당의 연대에 금이 갈 가능성이 커졌다.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입장 조율이 이뤄지지 않으면 패스트트랙 안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내 역학구도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오 원내대표는 출마선언문에서 원내대표에 당선되면 사개특위 사보임 원상복구와 손학규 대표 등 지도부 퇴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선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도 “당 변화의 첫걸음은 현 지도부 체제의 전환이라 생각한다”며 “이른 시일 내에 의원단 워크숍을 개최하고 거기서 총의를 모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충현 기자 lamuziq@



오신환(오른쪽) 바른미래당 의원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에 선출된 뒤 손학규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뉴스시스

“대형마트, 명절 당일 의무휴업일 지정해야”

박맹우 의원, 유통산업발전법 발의

대형마트나 SSM(기업형 슈퍼마켓) 직원의 명절 당일 휴식권을 보장하는 법안이 국회서 발의됐다. 대형마트나 SSM 직원 중 77.9%가 명절 당일 휴식권 보장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난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맹우(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15일 설이나 추석이 포함된 달에는 의무휴업일 이틀 가운데 하루를 명절 당일로 지정토록 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은 매월 공휴일 중 이틀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고 있다. 이런 의무휴업일은 대체로 일요일로 정작 명절 당일에는 근무를 하는 실정이다.

박 의원이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유통연구소와 함께 실시한 ‘대형마트 & SSM 근

로자 명절 근무의향 조사’ 결과 마트 근로자 673명 중 524명(77.9%)이 ‘명절날과 가까운 의무휴업일에 근무하는 대신 명절 당일에 쉬고 싶다’고 답했다.

응답자 가운데 대형마트 직원(579명)의 77%, SSM 직원(94)의 83%는 명절 당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데 찬성했다.

그 이유로 ‘가족이나 친구들과 명절을 함께 보낼 수 있어서(80.5%)’를 꼽았다. ‘명절에 매장을 찾는 고객이 별로 없어서’라는 답변도 10.2%였다.

박 의원은 “중·소상인들이 우려하는 의무휴업일 이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마트근로자의 휴식권을 부여하는 동시에 소비자와 기업도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코자 각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김하늬 기자 honey@

이낙연 “정부·당이 시키면 총선 출마 등 따를 것”

신문방송편집인협 토론회 “당정, 협치 노력 더 있어야”

이낙연(사진) 국무총리는 15일 내년 총선 역할에 대해 “저도 정부·여당에 속한 사람이니 심부름을 시키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제 역할을 제가 생각하고 있지 않으며 제가 기획할 생각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총선에서 합당한 역할을 하겠다는 언급이 지역구 출마를 염두에 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정부·여당의 일원이기 때문에 시킨다면 합당한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해찬 더불어 민주당 대표가 이에 대해 진지한 말씀



이 아니라고 했는데 제대로 보신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제 임기가 끝날 땐 ‘안전 대한민국이 진일보했다. 그 과정에서 이낙연이 일조했다’는 평가라도 남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이 총리는 “저로선 좀 부담스럽다”며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다. 마음의 준비도 그렇게 단단히 돼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야권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해선 “행정부에 몸담은 사람이 제1야당 대표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몹시 위험한 일”이라면서 “그분에 대해 그렇게 깊게 알지도 못한다”고 했다.

이 총리는 야당과의 협치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협치의 부족은 참으로 아쉽게 생각하는 대목”이라며 “정부·여당의 노력이 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한쪽의 노력만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도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국가적 문제가 있으면 함께 자리를 주시는 게 어떻게 하는 제안을 조심스럽게 드린다”며 “기왕에 시급한 문제가 있으니 여야 5당 대표가 함께 모이고 1대 1 대화를 수용해 주시면 어떻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종=박병립 기자 riby@

오늘의 체지방 관리 바이탈뷰티 메타그린

100% 유기농 녹차를 직접 재배합니다

녹차카테킨은 주원료인 녹차의 질이 제일 중요하니까, 국내산 녹차를 직접 재배합니다 독자적인 AP 녹차연구기술의 바이탈뷰티 메타그린, 현대인의 문제적 식습관으로부터 체지방 감소와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루 세 정 건강한 습관입니다

특허받은 녹차카테킨으로 한국인 건강맞춤



고열량식이 섭취로부터 체지방 관리

메타그린 녹차 카테킨이 고열량, 고탄수화물 식단이 잦은 한국인의 체지방 관리를 도와 대사 건강을 케어합니다



대사 건강을 위한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메타그린의 녹차추출물은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약처 인정 기능성 원료로 믿고 섭취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세포 대사를 유지하는 항산화 작용

녹차추출물과 비타민C를 함유, 불규칙한 생활습관으로 생성되는 유해산소로부터 대사를 원활히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유튜브에서 바이탈뷰티를 검색하세요

100% 유기농
국산 녹차
오일북 농장 직접 재배 관리

25만 고객의 선택
450억원 판매
2018년 구매고객 및 누적판매 기록



제품상담
구매문의

080-023-5454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 www.amorepacificmall.com

바이탈뷰티

예멘 반군, 사우디 송유관에 '드론 폭탄' 불붙은 '중동 화약고'

'세계 에너지 수송로' 잇단 공격 호르무즈해협 봉쇄 가능성 제기 중동 의존 높은 韓 등 대책 고심



상선 4척이 12일(현지시간) 공격을 받은 아랍에미리트(UAE) 동부 푸자이라 해안과 인근 호르무즈 해협.

'중동 화약고'에 다시 불이 붙기 시작했다. 이란과 미국 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란과 대립하는 이슬람 수니파 맹주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유조선과 석유 인프라가 잇따라 공격을 받으면서 중동 지역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세계 핵심 에너지 수송로인 호르무즈해협이 봉쇄될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돼 인근 국가와 미국은 물론 중동 원유 의존도가 높은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칼리드 알팔리 사우디 산업에너지광물부 장관은 이날 동서를 횡단하는 파이프라인과 연결된 석유 펌프장 2곳이 폭발물을 실은 드론(무인항공기)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알팔리 장관은 "최근 테러리즘 행위와 사보타주(의도적 파괴행위)는 사우디는 물론 세계 원유 공급과 글로벌 경제의 안전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며 "이번 공격은 비겁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예멘 후티 반군은 드론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후티가 운영하는 TV 방송국인 알마시라흐는 7대의 드론이 중요한 사우디 시설을 목표로 공격을 가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공격을 받은 펌프장들은 각각 알두와디미와 아피프 지역에 있으며 사우디 동부 유전에서 생산한 원유들을 서쪽 홍해 연안 항구인 안부까지 수송하는 중요 기반 시설이다. 호르무즈해협이 봉쇄돼도 이 파이프라인이 살아 있으면 수출할 수 있다.

앞서 호르무즈해협 인근 아랍에미리트(UAE) 푸자이라항에서도 지난 12일 사우디 유조선 2척 등 총 4척의 상선이 사

보타주 공격을 받았다. 호르무즈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와 액화천연가스(LNG)의 3분의 1이 지나가는 세계 에너지 운송망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길목이다. 이란은 미국의 제재에 맞서 호르무즈해협을 봉쇄할 수 있다고 위협해왔다. 미국도 항공모함 전단과 전략폭격기 등을 중동에 속속 배치하는 등 이란을 정조준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이란이 미군을 공격하거나 핵 개발을 가속할 경우 최대 12만 명의 미군을 중동에 파견할 계획이 있다"는 NYT의 보도는 "가짜 뉴스"라며 "그러나 우리가 파병을 계획하면 훨씬 더 많은 미군을 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은 최악의 경우 호르무즈해협이 봉쇄될 가능성까지 고려해 긴급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지난해 우리나라 원유 수입에서 중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4%였다. 이란산 원유 비중도 약 8%를 기록했다.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에 이날 국제유가는 급등했다. 미국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WTI) 가격은 전일 대비 1.2% 상승한 배럴당 61.78달러, 브렌트유 가격은 1.4% 오른 배럴당 71.24달러를 나타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트럼프, 이번주 '화웨이 금지' 행정명령

"국가안보 위협하는 장비 사용 안돼" 對中 압박 수위 높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테크놀로지 봉쇄에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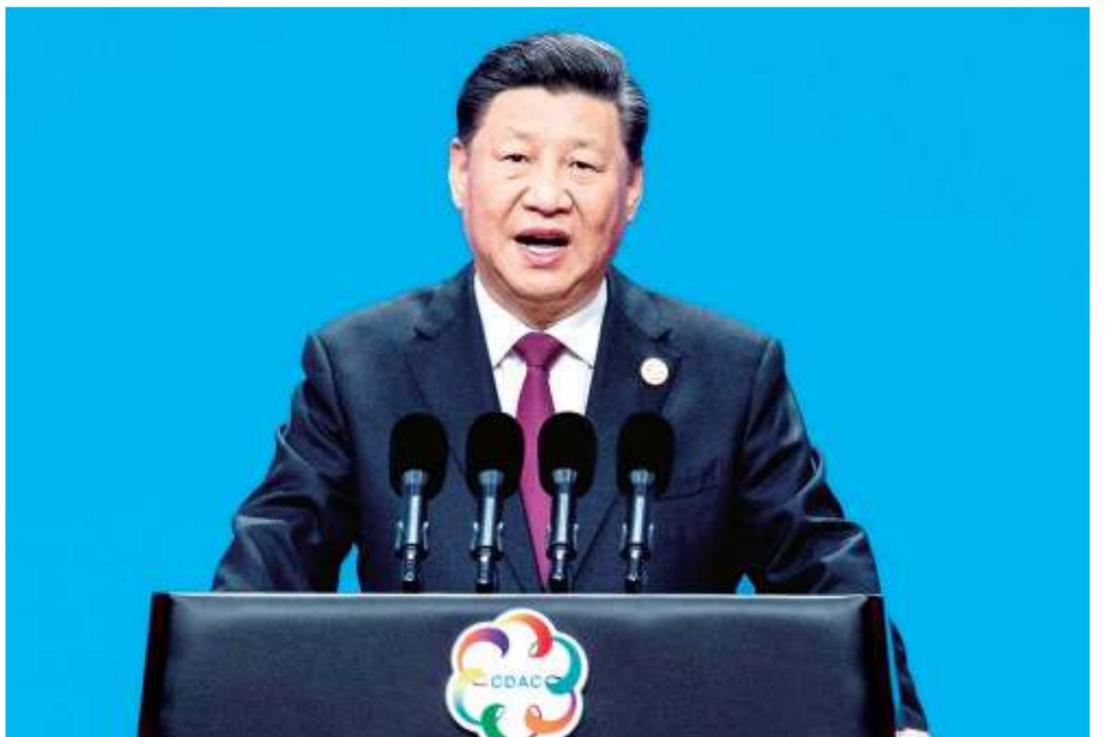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국가안보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의 통신장비를 미국 기업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CNBC방송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행정명령에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적용될 예정이다. IEEPA는 미국을 위협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상업을 통제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번 행정명령의 적용기간은 1년이며 추후 연장될 수 있다. 행정명령에 구체적인 국가와 회사는 명시되지 않을

것이라고 CNBC는 전했다. 그러나 CNBC는 이번 조치가 화웨이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행정명령에 화웨이나 중국의 또다른 통신장비업체 ZTE가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상무부 관리들은 이를 두 기업의 장비 사용 확산을 제한하는 공식적인 허가로 해석할 것이라고 CNBC는 평가했다. 대부분의 미국 기업들은 이미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 행정명령이 발동하면 강경한 자세가 한층 더 선명해진다. 더욱이 보복 관세를 주고받으며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민감한 시기에 행정명령이 발동돼 주목된다. 트럼프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해당 행정명령을 검토, 미중 무역협상 진척 상황을 보면서 연기해 실

제로 서명까지 가진 않았다. 미국은 화웨이 장비가 중국 정부의 간첩 활동에 이용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런 이유로 동맹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에도 화웨이 장비를 5G 네트워크에 사용하지 말도록 설득해 왔다. 지난해 8월, 트럼프는 미국 정부 기관의 화웨이 및 ZTE 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도 지난해 4월 미국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의 장비와 서비스 이용에 정부 예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에 찬성했다. 이달 5일에는 중국 국영 통신사인 차이나모바일의 미국 시장 진입 신청을 만장일치로 거부했고, 다른 두 개의 중국 통신사의 미국 입국 허가를 부여한 것에 대해 재검토할 방침이다.

김서영 기자 0jung2@



시진핑 "타국 개혁 시도 재앙 될 것"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현지시간) 베이징에서 열린 '아시아문명대화대회' 개막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그는 이날 "자국의 민족과 문명이 다른 국가보다 우수하다고 생각해 다른 문명을 개조하려거나 아예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해력 측면에서 어리석은 것이며 실행에 옮길 때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 주석은 미국이 최근 관세 전쟁을 다시 발동한 이후 이날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베이징/AFP연합뉴스

폐업위기 日 온천에 글로벌 투자 열기

"관광 특화" 사모펀드들 잇단 러브콜

폐업 위기에 내몰렸던 일본의 지방 온천들이 글로벌 사모펀드의 투자 열기 덕에 되살아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일본의 대표적 관광 자원인 온천에 글로벌 사모펀드들의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15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올해 2월 소프트뱅크 산하 미국 사모펀드 포트리스인베스트먼트는 일본 중부 오사카 연안의 고층 빌딩에 대형 온천형 테마파크 '소리니와 온천'을 열었다. 회사 최고투자책임자(CIO)가 미국과 오사카를 수없이 오가며 개발을 지휘하는 등 사모펀드로서는 이례적으로 온천 사업에 큰 공을 들였다.

포트리스는 일본에서 약 90개의 온천과 호텔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4년간 호텔 등을 포함한 일본 부동산에 최대 4000억 엔(약 4조342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산하 부동산투자신탁(REIT)인 인빈서블투자법인은 작년에 호텔 12곳을 인수, 운용 자산에서 호텔이 차지하는 비율은 작년 말 기준 64.1%로 1년 전보다 3.2%포인트 상승했다.

또 다른 사모펀드인 베인캐피탈도 일본 온천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베인캐피탈은 2015년 인수한 오오에도 온센모노가타리

등 30개 이상의 시설을 운영 중이다. 3월에는 구마모토현의 '가메야호텔 하나쓰바키'를 인수했고, 4월에는 미에현에서 온천 리조트를 열었다. 이번 아니라 사업 확대를 위해 일본 전역에서 물건을 찾고 있다. 온천으로 특화한 오오에도온천리조트투자법인의 자산 규모는 367억 엔으로 1년간 40% 증가했다.

이 같은 미국 사모펀드들의 뜨거운 온천 투자 열기는 금융시장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인빈서블의 REIT 투자구(한 주당 가격) 가격은 올해 들어 20% 이상 뛰었다. 오오에도온천리조트도 10% 가까이 올라 도쿄증권거래소 REIT지수의 상승률(6.6%)을 웃돌고 있다.

홍콩 사모펀드인 오디세이캐피탈은 작년에 니가타현 에치고유자와에키에 있는 오래된 온천 여관인 '쇼센카쿠가게쓰'를 인수했다. 1955년에 문을 연 이 여관은 오디세이가 인수한 후 홈페이지를 쇄신과 적극적 홍보 덕에 매출이 15% 늘었다고 한다. 오디세이는 향후 3년간 5억 달러(약 5950억 원)를 투자해 일본의 오래된 여관을 20곳 정도 인수할 계획이다.

일본 부동산 전문업체 아이비소켄은 "목욕탕 문화가 없는 서양인에게 온천은 독특한 일본 문화를 느끼게 해주는 스트라이크 존"이라며 "해외 펀드들도 그 맛을 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배수경 기자 sue6870@

"이젠 중앙은행끼리 겨뤄보자" 美·中, 통화전쟁으로 번지나

트럼프, 연준에 금리인하 주문... 中,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

10개월 넘게 지속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이 통화전쟁으로까지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격해진 관세전쟁에 "이제는 중앙은행끼리 겨뤄보자"며 금융당국 동원 명령을 내리면서다.

1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 통해 "중국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그들의 시스템에 돈을 퍼부어 것이고, 실적을 보완하기 위해 아마도 금리를 내릴 것"이라며 "만약 연준이 이에 맞수를 둔다면 게임은 끝날 것이다. 우리의 승리!"라고 말했다.

실업률이 4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미국 경제가 튼튼하다는 평가를 받는 상황에서 '성장률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이유로 금리 인하를 주장해 온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명목으로 금리 인하 주장을 반복한 것이다.

그는 지난 1일 "우리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로 금리를 올렸고, 많은 양의 양적 긴축(QT)을 시행했다. 금리를 1% 정도 내리고 약간의 양적 완화(QE)를 시행한다면 미국 경제는 로켓처럼 치솟을 잠재력이 있다"며 연준에 금리 인하를 주문했다.

2020년 미국 대선 재선을 목표로 하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미중 무역전쟁 격화가 경기 악화로 이어질 경우 그 책임을 금융 당국에 돌릴 빌미를 마련한 셈이다.

한편 중국의 입장에서도 외환 시장에 개입할 이유는 충분하다. 미중 무역전쟁 긴장이 고조되면서 중국 위안화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달 들어 달러당 위안화 가치는 6.9위안까지 하락해 지난해 1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 당국의 외환 시장 개입 마지노선은 달러당 7위안선이다. 위안화 가치가 달러당 7위안 이상으로 떨어지면 당국이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개입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할수록 중국 당국의 외환 시장 개입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분석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맥쿼리증권은 "중국이 위안화 가치가 마구 떨어지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보진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중국의 선택은 좀 더 복잡하다. 위안화 약세가 미국에 수출하는 중국산 제품의 가격을 떨어뜨려 관세 인상의 영향을 상쇄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를 키우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국이 위안화 평가 절하를 시도한다면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서 또 다른 긴장 상태가 유발될 수 있다. 이슬기 기자 seulkee@



이 꽃병에선 모든 꽃말이 '안심'

혹시, 소화기 어딘는지 기억나세요?

언제나 당신 가까이 둘 수 있는
꽃병소화기 Firevase를 소개합니다

평소에는 꽃병이자
화재 시 던져서 불을 끄는
꽃병소화기 Firevase

늘 곁에 있는 보험처럼
늘 옆에서 당신을 지킬 거예요



www.samsungfire.com

꽃병소화기 Firevase 관련 자세한 사항은 삼성화재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승인 투척용 소화용구 | 일반화재 초기진화용 | 사용 전 제품 속 품질보증서 필독

당신에게 좋은보험 삼성화재



‘우리銀 전산사고’ 제재심 회부... 징계 수위 촉각

금감원, 전자금융거래법 근거 사후 수습과정 따라 수위 결정

내부통제 강화 나선 손태승 회장 CIO 임명 등 재발 방지 만전

금감독원이 지난해 발생한 우리은행 ‘전산사고’를 올 하반기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 상정한다.

15일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현재 법률 검토 작업을 마치고, 하반기 중에 제재심에 해당 사안을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9월 21일 온라인·모바일뱅킹에서 장시간 타행 송금이 중단된 금융사고에 관한 징계 논의가 이뤄지는 것이다. 금감원은 사고발생 한 달 뒤인 지난해



IT 관련 법규 위반행위 제재기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전산시스템 재해복구 지연		
내용	인직원 제재양정	기관 제재양정
24시간 이상	직무정지(정직) 이상	기관경고 이상
5시간 이상	문책경고(감봉)	기관주의
1시간 이상	주의적경고(견책)	

금전적 사고		
내용	인직원 제재양정	기관 제재양정
50억 원 이상	직무정지(정직) 이상	기관경고 이상
10억 원 이상	문책경고(감봉)	기관주의
1억 원 이상	주의적경고(견책)	

10월 우리은행 경영실태평가에 착수해 한 달간 IT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사고는 우리은행이 3년간 3000억 원을 투자한 차세대 전산시스템 ‘위니(WINI)’에서 발생했다. 손태승 회장은 지난해 위니가 동 예정일을 당초 2월에서 5월로 연기할 정

도로 삼혈을 기울였다. 하지만 그해 5월 8일 위니를 공식 가동한 첫날 모바일뱅킹에서 오류가 발생했고, 첫 월말 결제일인 5월 31일에도 거래량 폭주로 인해 9월에 발생한 사고와 비슷한 전산장애를 빚은 바 있다.

당국의 제재 근거는 전자금융거래법이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39조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자금융상 장애가 장시간 지속되거나 빈번하게 발생할 때 징계를 할 수 있다. 당국은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기관주의·기관경고 등 기관 제재와 직원 주의·경고·문책 및 임원 해임권고·직무정지 등 인적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IT관련 법률 위반 행위의 경우 전산시스템 재해복구 지연 시간, 피해금액 규모 등이 제재 양정의 기준이 된다. 지난해 9월 오전 8시 30분께 우리은행 전자금융 공동망 장애가 발생했다. 우리은행은 이후 오전 10시까지 망을 복구했다고 밝혔지만 오후 5시까지도 거래지연이 이어지면서 고객들의 불편을 초래했다.

금감원은 가중 및 감경 규정에 따라 사후 수습 과정을 참작해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한다. 이에 손 회장은 최근 금감원을 찾아 전산사고 관련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조치를 충실히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리은행은 4월 우리FIS의 이동연 대표를 은행의 최고정보책임자(CIO)를 겸임토록 해 은행의 내부통제 수준을 높였다. 이전에는 IT 관련 업무를 우리FIS에 100% 아웃소싱했다.

업계에서는 금융권에서 이례적으로 큰 규모의 전산사고가 발생한 만큼 징계 수위를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사고 발생 당시 수습 과정에서 우리은행과 우리FIS 간의 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시스템뿐만 아니라 인력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사고로 인해 민원 건수가 지난해 2분기(682건)와 3분기(346건)로 급증하는 등 소비자 피해도 컸다.

김보름 기자 fullmoon@

〈2금융권〉 수도권보다 지방... 자영업대출 연체 ‘빨간불’

금융권 개인사업자 대출이 400조 원을 넘어섰다. 2금융권을 중심으로 연체율까지 오르고 있다.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올리는 경도음이 더 크다. 정부는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실물경제 위함이 금융시스템에 전이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15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연구원은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개인사업자대출 건전성 점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체 금융권의 개인사업자대출(자영업 대출) 잔액은 3월 말 기준 405조8000억 원을 기록 중이다. 전년(400조1000억 원) 대비 11.1% 늘어났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대출이 319조 원, 제2금융권 대출이 86조9000억 원이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임대업이 162조 원으로 가장 많고, 제조업 60조8000억 원, 도소매업 57조5000억 원, 음식·숙박업 38조9000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연체율이다. 자영업 대출의 1분기 말 기준 연체율은 0.75%로 집계됐다. 2015년 1.09%에서 2016년 0.69%, 2017년 0.61%, 2018년 0.58%로 하락하다가 올해 반등세로 돌아섰다.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은 “전반적인 연체율 수준은 예년보다 안정적인 편”

업권	2015년 3월	2016년 3월	2017년 3월	2018년 3월	2018년 12월	2019년 3월
총금융권	1.09	0.69	0.61	0.58	0.63	0.75
은행	0.59	0.41	0.36	0.33	0.32	0.38
제2금융권	4.83	2.59	1.94	1.62	1.78	2.14
- 상호금융	2.6	1.2	0.91	0.93	1.15	1.61
- 여전사	3.02	2.24	2.35	2.36	2.66	2.77
- 저축은행	13.13	7.24	5.12	3.78	3.65	3.94
- 보험	4.83	4.05	7.21	5.85	1.66	1.29

※출처: 금융위원회

저축은행 연체율 상승폭
수도권 0.15%P·지방 1.63%P

상호금융 연체율 상승폭
수도권 0.39%P·지방 0.75%P

금융위 “상환심사 소홀 등 영향 건전성 모니터링 강화할 것”

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2금융권으로 시야를 좁혀보면 사정은 다르다. 은행들 연체율은 지난해 0.33%에서 올해 0.38%로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지만, 2금융권은 1.62%에서 2.14%로 급등했다. 구체적으로는 상호금융(0.93%→

1.61%), 여전사(2.36%→2.77%), 저축은행(3.78%→3.94%) 등으로 나타났다. 제조업(0.66%→0.76%)을 비롯해 부동산·임대업(0.66%→0.76%), 도소매업(0.75%→0.88%), 음식·숙박업(0.73%→1.03%), 보건·사회복지(0.38%→0.52%) 등 전 업종이 올랐다. 손 사무처장은 “상환능력 심사가 소홀했던 데다, 지역 경기가 부진을 겪으면서 연체율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도권 저축은행(3.70%→3.85%)보다 지방(6.12%→7.75%)이, 수도권 상호금융(0.90%→1.29%)보다 지방(1.65%→2.40%)이 더 많이 올랐다. 그는 “자영업대출 건전성은 경기 여건에 민감한 만큼, 지역 경기가 어려운 곳을 중심으로 건전성 동향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선현 기자 sunhyun@

〈기업 PR〉 삼성카드-이마트 트레이더스 빅데이터 맞춤형 마케팅 결실

월계점 카드 사용 143% 증가

삼성카드와 이마트 창고형 마트 ‘트레이더스’의 빅데이터 마케팅이 실제 매출 증대로 이어졌다.

삼성카드의 14일 트레이더스 월계점 개점 후 2주간 삼성카드 이용금액이 최근 신규 개점한 타 점포 평균과 비교해 약 143%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삼성카드의 빅데이터 기반 고객 선정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삼성카드의 트레이더스 서울 1호점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월계점 개점 전부터 빅데이터를 분석해 잠재고객을 추출하고 맞춤형 홍보를 실시했다. 또 홍보 대상을 단순히 기존 할인점 이

용자나 인근 거주자만으로 한정하지 않고 실제 소비지역과 이동 동선 등을 분석해 고객을 선정했다. 이 밖에 고객의 선호 업종과 소득, 소비 규모, 직업군 등 스마트 알고리즘을 활용한 다각적 분석을 통해 월계점 방문이 예상되는 고객의 특징을 파악했다.

이 같은 빅데이터 기반 분석은 곧 매출 증가로 나타났다. 실제로 월계점의 삼성카드 이용 비중은 60%에 달해 타 점포 평균(35%)보다 높았다. 또 월계점 개점에 맞춰 트레이더스 이용 실적에 따라 최대 5%를 할인해 주는 ‘트레이더스 신세계 삼성카드’를 출시해 월계점 매출 증대를 지원했다. 앞으로 양사는 단독 제휴를 통한 공동



마케팅을 펼치는 등 다방면으로 협업하여 동반 성장할 계획이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삼성카드의 빅데이터와 디지털 역량을 총동원해 다양한 방식의 마케팅을 지속할 것”이라며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함께 ‘윈-윈’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車보험료, 또 오른다... 평균 1.5% 인상

정년 상향 등 표준약관 개정 하반기 추가 인상 가능성도

자동차 보험료가 이달 말부터 인상된다. 인상폭은 1.5% 내외로 전망된다. 한 해에 자동차 보험료를 두 차례 올리는 것은 이례적이지만, 하반기 추가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약사손해보험은 이달 말부터 자동차 보험료를 1.4% 인상한다. 삼성화재도 전날 ‘2019년 1분기 실적발표회(IR)’에서 6월 초 보험료 1.5% 인상을 공식화했다.

다른 대형사 역시 6월 초 보험료 인상을 준비 중이다. KB손해보험은 1.5~1.7%, DB손해보험은 1~1.3% 수준으로 각각 인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해상(1.5~1.8%)은 둘째 주 인상을 예정하고 있으며, 메리츠화재(1~1.5%)도 6월 중 보험료 인상을 단행할 계획이다.

이번 보험료 인상 요인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때문이다. 대법원이 2월 육체노동자 취업가능연한(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올려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이를 반영해 개정된 표준약관이 이달 1일 시행됐다.

사고 차량 시세하락 손해 보장 확대(출고 후 2년→5년)도 개정된 약관에 반영돼

사명	시기	인상폭(%)
약사손해보험	5월 말	1.40
삼성화재	6월 초	1.50
현대해상	6월 둘째 주	1.5~1.8
KB손해보험	6월 초	1.5~1.7
DB손해보험	6월 초	1~1.3
메리츠화재	6월 초	1~1.5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업계는 주장한다.

손보사들은 손해율과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조만간 인상폭을 확정할 계획이다. 자동차 보험료 인상에 앞서 영업일 5일 전에 공시해야 한다. 다만 이번 보험료 인상에도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손보사들은 1월에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한 바 있지만, 이는 정비수가를 일부만 반영한 수치기 때문이다. 여전히 주요 보험사의 1분기 손해율은 적정 수준인 77~78%를 넘어 80%를 웃돌고 있다.

보험사들은 하반기 추가 인상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소비자의 반발을 고려해 특약 할인을 낮추는 방법으로 원가를 절감하고, 태풍이 지나가는 8월 이후 추가 인상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서지연 기자 sjy@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8건 추가 지정

AI보험·스마트폰 카드 결제 등

금융위원회는 15일 인공지능(AI) 보험계약 로보어드바이저와 스마트폰 앱으로 신용카드 단말기를 구현하는 기술 등 8건을 제3차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했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혁신금융 서비스 8건을 추가 선정했다. 이번 서비스의 주요 분야는 보험과 카드, 대출 분야에 집중됐다. ‘개인 맞춤형 대출 정보 비교’ 서비스와 QR코드 송금 등 4건은 앞서 지정된 것과 유사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했다.

먼저 보험 분야에서는 가입 상담부터 계약 체결까지 텔레마케팅(TM)채널 모집 전 과정을 AI를 통해 진행하는 ‘AI 보험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가 지정됐다.

우선 DB손해보험의 암보험과 운전자보험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혁신성과 소비자 편의 요건을

충족했다”며 “소비자 보호 조건을 전제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모든 민원과 분쟁, 소송은 DB손보가 1차 책임을 진다. 서비스 시행은 2020년 1월부터이며 효과가 입증되면 전 보험사에 AI 보험 모집이 허용된다.

카드 분야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이 결제대행업체(PG)를 통한 신용카드 결제 수납이 가능토록 했다. 이에 스마트폰을 단말기로 활용해 앱을 통한 카드결제가 가능해진다. 페이콕과 한국 NFC가 실시하는 해당 서비스는 각각 8월과 9월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 BC카드의 신용카드 이용 OR코드 연계 개인 간 간편송금 서비스도 선정됐다. 개인이 가맹점이 돼 청정점이나 경조사 안내물에 OR코드를 부착하고, 송금인은 OR코드를 스캔하면 송금되는 방식이다. 해당 서비스는 2020년 3월 시범 시행된다.

정용욱 기자 dragon@

‘전기차 기업 변신’ 볼보, LG화학 배터리 쓴다

LG화학이 전기차 기업으로의 변신을 선언한 볼보자동차그룹의 배터리 공급업체로 최종 선정됐다.

LG화학은 15일 볼보자동차그룹과 ‘차세대 전기차 프로젝트’에 적용될 리튬이온 배터리 장기계약을 체결했다. 구체적인 공급규모는 계약상 공개하지 않았다.

볼보자동차그룹은 올해부터 신차는 전기차로만 출시하기 시작해 2025년까지 전체 판매량의 50%를 순수 전기차로 채우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전 세계 자동차-배터리 업계에서는 차세대 초대형 프로젝트에 어느 업체 배터리가 적용될지 관심이 모아왔다.

볼보자동차그룹은 “LG화학은 전 세계 자동차업계에 리튬이온 배터리를 장기간에 걸쳐 성공적으로 공급해온 선도업체로서 기술 리더십,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볼보의 엄격한 구매 가이드라인을 충족시키는 기업”이라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계약으로 LG화학은 모듈형 플랫폼 기반으로 설계되는 볼보와 폴스타의 전기차 차세대 모델에 배터리를 공급하게 된다. 폴스타는 볼보자동차그룹이 2017년 론칭한 고성능 전기차 브랜드다. 모듈형

올해부터 신차는 전기차만 출시
‘파우치형 롱셀’ 기술 적용 전망

왜 LG 선정했나
에너지 밀도 높아
500km 이상 주행
단순한 구조로
다양한 모델 적용
전 세계 13개
車 브랜드 탑재



LG화학의 ‘파우치형’ 배터리를 탑재한 아우디 e-트론 전기차. KAMA 홈페이지 캡처

플랫폼은 다양한 차량 모델에 적용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차체 뼈대로, 이를 이용하면 원가절감 및 제품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다수의 완성차 업체들이 핵심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번 수주에는 LG화학이 배터리 업계 최초로 개발한 파우치형 배터리 ‘롱셀(Long Cell)’ 기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롱셀은 배터리 팩 내부의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으로 에너지 밀도를 향상시켜 전기차 주행거리를 늘릴 수 있고, 팩 구조를 단순화할 수 있어 ‘모듈형 플랫폼’ 기반의 전기차 제작에도 강점을 갖는다. 이에 따라 최근 ‘모듈형 플랫폼’을 기반으로 3세대 전기차(1회 충전시 주행거리 500km이상) 출시 관련 양산 계획

을 밝힌 글로벌 자동차업체들이 롱셀 배터리에 대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한 LG화학은 국내를 비롯해 순수 전기차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 중국, 유럽 3개 지역에 전기차 배터리 생산거점을 구축한 유일한 업체이자, 우수한 성능 및 안전성을 인정받아왔다는 점도 이번 계약에 긍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LG화학은 이번 계약을 통해 볼보자동차그룹과의 전략적 협업관계를 강화하고,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의 독보적인 위치를 더욱 굳건히 할 것으로 예상된다.

LG화학의 전기차 배터리 수주 잔고는 110조 원으로 자동차업체들의 배터리 수주 프로젝트가 대형화되고 플랫폼화됨에 따라 수주 규모는 지속 증가할 전망이다.

현재 LG화학은 영국 브랜드 컨설팅업체 브랜드파이낸스가 발표한 ‘2019년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 순위’ 상위 20개 브랜드 중 메르세데스-벤츠, 폭스바겐, 포드, 볼보, 현대차 등을 포함해 13개 브랜드에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다.

이에 LG화학의 전기차 배터리 매출은 올해 5조 원, 내년에는 10조 원으로 1년간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3세대 전기차가 본격 출시되는 2020년 이후 성장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글로벌 시장조사업체인 B3는 전기차 배터리 시장(리튬이온 배터리 및 니켈수소 전지)이 올해 228억5400만 달러(27조1300억 원)에서 2022년 399억 8400만 달러(47조4800억 원)로 75%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유진 기자 eugene@

‘배터리 굴기’ SK이노, 中 공장 더 짓는다

5800억 규모...작년부터 전 세계 총 5조 투자 결정

SK이노베이션이 중국에 약 5800억 원을 투자해 신규 배터리 생산공장을 추가로 건설한다. SK이노베이션은 14일 이사회를 열어 중국 신규 배터리 생산공장 건설을 위한 출자를 결의했다.

최근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수요량 증가에 따라 중국 장저우 공장에 이어 중국 내 추가로 생산기지를 설립하기 위한 것이다. 투자금액은 총 5799억 원이다. 투자를 위한 현지법인 설립 등은 추후 진행될 예정이며, 신규 배터리 공장 부지와 규모 등 세부

적인 투자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로써 이 회사는 지난해 3월 헝가리 코마롬에 첫 해외 생산기지 건설에 나선 이후 누적 투자 결정금액만 약 5조 원에 달한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중국과 생산적 협력을 통해 공동 성장한다는 차이나인사이드 전략에 따라 지난해 장저우 공장 건설에 이어 중국 현지에 추가로 신규 공장을 건설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2022년까지 60GWh의 생산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향후 신설 및 확장을 지속해 주

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8월 중국 합작 파트너인 중국 베이징자동차, 베이징전공과 함께 장쑤성 장저우시 내 최첨단 전기차 배터리 생산공장을 착공했다. 중국 자동차 업체와 해외 배터리업체 간 합작으로 중대형 배터리 생산공장을 건설하는 것은 국내 기업 중 처음이다. 약 30만㎡(약 9만 평) 부지에 전기차(30KWh 배터리 기준) 연산 25만 대 분량인 7.5GWh 규모로 건설 중이다. 이 공장은 올해 하반기 완공해 2020년 상반기 상업생산에 돌입할 예정이다.

변효선 기자 hsbyun@

LG전자, 올레드TV 부진 정면 반박

“2015년부터 판매량 1000배 성장”

“중국보다 기술력 2~3년 앞서”

LG전자는 14일 경북 구미시 LG전자 구미사업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레드 TV 판매량이 경쟁사 TV보다 부진하다는 평가를 정면 반박했다.

IHS마킷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QLED(양자점발광다이오드) TV 판매량은 268만7000대, 올레드(OLED·유기발광다이오드) TV 판매량은 251만4000대로 각각 집계됐다.

이에 대해 LG전자는 올레드 TV와 QLED TV를 동급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이정석 LG전자 HE(휴먼터테인먼트) 마케팅커뮤니케이션 담당 상무는 “경쟁사의 QLED TV는 2015년에 이미 판매된 SUHD TV의 이름을 바꾼 것”이라며 “이후 경쟁사의 2017년 TV 판매량은 2016년 대비 줄어 들었지만, 2018년 라인업에 또 다른 제품이 추가되면서 다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올레드 TV는 2013년 처음 등장한 이후 지금까지 무려 1000배 성장했다”며 “새로 나온 기술은 보통 3

~4년이 지나면 성장률이 꺾이는데, 올레드 TV는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LG전자는 향후 열릴 8K(7680×4320) TV 시장에서도 올레드가 우위를 점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희영 LG전자 TV 상품기획2팀장은 “해외 TV 관련 리뷰를 봤을 때 4K 올레드 TV가 8K LCD(액정표시장치) TV보다 화질이 좋다고 평한다”고 소개했다. 8K 화질이 4K(3840×2160)보다 2배 더 선명함에도, 이를 구현하는 디스플레이로 인해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는 설명이다. 또 “리뷰에서는 명암이나 해상도 측면에서 8K LCD라도 올레드를 뛰어넘기에는 여러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중국 업체들의 추격에 대해 LG전자는 기술력으로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팀장은 “중국 TV 제조업체들이 생각보다 빠르게 추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화질을 놓고 봤을 때 중국보다 LG전자 기술력이 2~3년 앞서 있고 화질을 향상시키는 알고리즘 기술 또한 비슷한 격차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구미(경북)·한영대 기자 yeongdai@

LS전선, 폴란드 공장 준공 국내 전선업계 첫 유럽 생산

LS전선(회장 구자엽)이 국내 전선업계 가운데 처음으로 케이블의 본고장인 유럽에 생산 거점을 마련했다.

LS전선은 14일 유럽 교두보인 폴란드 남서부 지에르조니우프시에서 케이블 공장 준공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 공장에서는 전기차 배터리용 부품과 통신용 광케이블을 생산한다.

폴란드는 도로 등의 사회간접자본이 잘 되어 있고, 정부가 각종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외국 자본의 투자를 적극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LS전선은 2017년 11월 폴란드에 전기차 배터리 부품 법인(LSEVP)을 설립했다. LSEVP는 연간 전기차 30만 대 규모의 부품 생산능력을 갖추고, 올해 말 인근 브로츠와프시 LG화학 납품을 시작으로 유럽 완성차 업체에 대한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폴란드 공장은 국내 구미와 베트남 호찌민에 이은 LS전선의 세 번째 광케이블 공장이다. LSCP는 유럽 시장의 약 7%인 연간 300만f.km(파이버 킬로미터·1f.km는 광섬유 1심외의 길이)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4월부터 제품을 양산, 이탈리아와 프랑스 등 유럽 주요 통신사에 공급하고 있다. 권태성 기자 tskwon@



14일(현지시간) 미국 산티클라라에서 열린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19’에서 팹리스 고객들이 정은승 삼성전자 사장의 기조연설을 듣고 있다.

美서 파운드리 승부수 던진 삼성

팹리스 고객 초청 포럼
차세대 3나노 공정 소개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분야 1위를 차지하기 위해 공격적인 파운드리 기술 혁신에 나섰다. 또 팹리스 고객들의 반도체 설계 기간과 초기 투자 비용을 줄여주는 상생 협력에도 적극적이다.

삼성전자는 14일(현지시간) 미국 산타클라라 메리어트호텔에서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19’를 개최하고 ‘차세대 3나노 GAA 공정’과 새로운 고객 지원 프로그램인 ‘SAFETM-Cloud’를 소개했다.

삼성전자는 올해 포럼에서 3GAE(3나노 Gate-All-Around Early)의 공정 설계 키트(PDK)를 팹리스 고객들에게 배포했다고 밝혔다.

3나노 이하 초미세 회로에 도입될 GAA 구조의 트랜지스터는 모바일, 인공지능(AI), 5G, 전장, 사물인터넷(IoT) 등 고성능과 저전력을 요구하는 차세대 반도체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삼성전자의 3GAE 공정은 최신 양산 공정인 7나노 핀펫 대비 칩 면적을 45%가량 줄일 수 있으며, 약 50%의 소비전력 감소와 약 35%의 성능 향상 효과가 기대된다.

삼성전자는 또 팹리스 고객에게 설계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SAFETM-Cloud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SAFETM-Cloud 서비스는 아마존 웹 서비스(AWS), 마이크로소프트(MS), 자동화 설계 툴(EDA) 회사인 케이던스(Cadence), 시놉시스(Synopsys)와 함께 진행하며 속도와 보안성이 검증된 클라우드 환경을 제공한다. 송영록 기자 syr@

삼성전자 프리미엄 디스플레이 동남아 공략

초고화질 ‘2019 더 월’ 첫선

삼성전자가 상업용 디스플레이 솔루션을 대거 공개하며, 동남아 프리미엄 상업용 디스플레이 시장 확대에 나선다.

삼성전자는 15일부터 17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디스플레이 전문 전시회 ‘동남아 인포콤 2019(InfoComm SouthEast Asia 2019)’에 참가해 ‘더 월 프로페셔널(The Wall Professional)’을 비롯한 다양한 혁신 제품들을 선보인다.

세계 최대 상업용 디스플레이 전시회인 인포콤을 주최하는 AVIXA(국제시청각 협회)는 올해부터 본 전시회와 별개로 동남아·인도·중국(베이징, 청두) 등 4개 지

역에서 지역별 전시회를 개최한다. ‘동남아 인포콤’은 그 첫 번째 행사다.

삼성전자는 2019년형 ‘더 월 프로페셔널’을 선보였다.

마이크로 LED기술을 적용해 초고화질을 구현한 스크린으로 베젤이 없고 슬림한 두께의 ‘인피니티 디자인’을 적용해 사용자의 목적에 따라 사이즈 조절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삼성전자는 ‘QLED 8K 사이니지’를 전시해 동남아 프리미엄 사이니지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한다. 고성능 SoC(System-on-Chip) 기능이 탑재된 슬림 베젤 비디오월 솔루션 ‘VMR-U 시리즈’도 선보인다. 권태성 기자 tskwon@

“수축사회 속 중기부 역할은?” 박영선 장관 첫 북콘서트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문재인 정부의 부처인 동시에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주역이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까지 대한민국 경제정책이 팽창사회에 익숙했다면, 수축사회에서는 어떤 것을 대비해야 하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중기부 직원들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에서 ‘수축사회’를 읽고 독서토론을 하자고 제안한 이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주재하는 북콘서트가 15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렸다. 중기부는 ‘박영선 장관과 함께하는 대박소통’이라는 뜻으로 ‘박장대소’라고 행사 이름을 붙였다. 현장에는 ‘수축사회’의 저자 홍성국 해안리서치 대표와 중기부 직원 140여 명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인사말에서 “급해도 장미꽃의 향기를 맡을 여유를 가져라”라는 서양 속담이 있다”며 “직인 여러분도 바벨 때도 책 속에서 삶의 지혜를 찾기 바라면서 독서토론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북콘서트 성격의 독서토론을 정례화하고 제안했다. 그는 “두 달에 한 번씩 마련해보고자 한다”며 “오늘이 5월 15일이니 7월 중순쯤 마련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 책으로 박 장관은 대통령 경제과학특별보좌관을 맡은 이정동 서울대

소상공인 온라인 판매 지원 해외시장 수출 가능해질 것

중기부 직원 140여 명 참석 “두 달에 한 번 소통의 자리”

북콘서트 행사 정례화 제안

교수의 ‘축적의 길’을 선택했다. 박 장관은 “이정동 교수가 직접 오셔서 북콘서트를 해주기로 했다”며 “세 번째 책은 직원들이 추천해주신 책 가운데 고를 것”이라고 했다.

수축사회란 인구가 늘고 파이가 커지는 ‘팽창사회’의 반대로 인구 감소, 고령화, 저성장 등으로 사회발전이 정체하는 것을 뜻한다. 저자인 홍 대표는 △우리는 지금 수축사회에 있는가 △수축사회 속 대한민국 미래는 △중기부의 역할과 해법으로 나누어 강연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수축사회에 있다는 근거 현상으로 △이기주의의 △전원 전투 중 △미래 실종 △집중화 △정신병동 등을 제시했다. 이 같은 현상 중 박 장관은 ‘전원 전투 중’ 현상에 가장 공감한다고 밝혔다.

‘수축사회’에 따르면 소비 패턴의 변화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1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중기부 직원들과 북콘서트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 중기부

로 민간 소비가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저자는 자영업이 쇠퇴한 배경으로 대형마트, 편의점, 해외 직구 등 소포 채널이 다양해진 점을 꼽는다. 이와 관련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중기부의 역할에 관해 박 장관은 질문을 받았다. 이에 박 장관은 올해 소상공인 정책에서 온라인 투자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 장관은 “최근 부산에 가서 떡집을 운영하는 두 분을 만났는데 한 분은 온라인 판매를 시작한 뒤 매출이 무려 20% 늘었

다고 했고, 바로 그 옆에 오프라인 판매만 하시는 분은 매출이 40% 줄었다고 했다”며 “온라인 판매를 하는 곳은 잘 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소상공인 분야는 데이터를 더 분석해 온라인 판매 지원을 늘리는 것이 목표”라며 “단순히 지역 상권이 아닌 전국 상권, 해외 시장으로 수출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대표는 중기부 직원들을 향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만 몰두하는 것을 넘어 협업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협업의 방식”이라는 말이 있다”며 “100이라는 능력을 10명에게 주면, 그들이 50씩만 돌려줘도 500만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기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매우 많은데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해 정책 실행이 안 되는 일이 많다”며 “눈앞에 내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협업하면, 한국 경제 문제 중 많은 부분이 해결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장관은 끝으로 “중기부 직원들이 내뿜는 분위기가 남다르다”며 격려했다. 그는 “15년 동안 국회 생활에서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부위원회, 정보위원회를 거쳤는데 거기서 만난 각 부처의 공무원들과 중기부 공무원들의 분위기가 다르다”며 “중기부 공무원들은 무언가 뜻뜻함이 있다”고 웃으며 말했다. 이어 “그 이유가 대부분 타 부처 공무원들은 80-90%가 인문학 전공자인 데 반해 중기부는 이공계 출신이 절반가량으로 섞여 있기 때문인 것 같다”며 “잘만 하면 굉장한 에너지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아울러 스티브 잡스의 말을 인용해 “인문학과 IT가 만날 때 새로운 것이 나온다고 했다”며 “그 새로운 것이 여기에 있다고 본다”고 말해 직원들을 격려했다.

대전=이지민 기자 aaaa3469@

김상훈 “공짜 렌터카로 광고시장 새바람”

(뽕카 대표)

차량 외부에 기업 광고 부착 광고비 받아 무료 카셰어링 올해 말까지 1000대로 증차



1대당 월 160만~200만원이다. 택시의 광고비는 1000대 이상에 부착하는 조건하에 1대당 월 8만원 정도다. 뽕카는 광고비로 차량 1대당 월 90만원

“지금까지 없었던 전혀 새로운 형태의 운송서비스와 광고 플랫폼을 통한 사업모델을 구축했습니다.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으로 자신합니다.”

15일 서울 신사동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상훈(사진) 뽕카 대표는 회사의 주력 수익모델인 ‘뽕카 GO’의 사업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통’의 창업자로 작년 뽕카의 대표로 합류했다.

‘뽕카GO’는 차량 대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차를 빌려주면서 차량의 외부에 기업광고를 부착하는 형태의 서비스다. 이용자에게는 공짜지만 기업들에 광고비를 받아 운영되는 시스템이다. 이른바 ‘공짜 렌터카’로 이용자가 광고판을 움직이는 셈이다.

대표적 차량 외부 광고인 버스과 택시 광고 시장을 잠식하겠다는 게 뽕카의 1차 목표다. 현재 버스 외부 광고는

정도를 책정했다. 김 대표는 “택시와 버스광고 사이의 틈새시장을 개척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현재 SK커뮤니케이션즈와 육선의 광고를 부착한 차량 150대가 서울 시내와 경기 일대를 돌아다닌다. 소비자들의 반응도 좋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뽕카 자체 집계 결과 이달 들어 하루 2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월말까지 배차 스케줄이 90% 이상 완료됐다.

김 대표는 “기존의 버스나 택시 광고가 식상하다는 기업들의 수요와 맞아떨어지고 있다”며 “현재 10여 개 기업과 조건 등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말까지 1000대로 증차하고 최종적으로는 1만 대까지 운영하겠다는 것이 뽕카의 목표다. 연말까지는 월 9

억 원 이상의 매출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이용자로부터 요금을 받지 않아도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라고 김 대표는 덧붙였다.

서비스의 빠른 확산을 위해 7월 1일부터는 기존의 카 셰어링 서비스처럼 무인 배차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는 서울 구의, 강남, 당산, 마곡 지역에서 차량 대여 및 반납소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차를 내어준다.

김 대표는 “무인 배차가 이뤄지면 현재 주력 이용층인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의 이용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젊은 층일수록 이동수단으로만 차량을 이용할 경우 광고가 붙어 있다는 점에 대해 큰 거부감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뽕카는 서비스 이용 지역과 용도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제주지역에서 서비스 운영을 시작했고 조만간 공항 셔틀 형태의 서비스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김 대표는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배차가 가능토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옥외광고 시장이 큰 동남아 시장 진출도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기훈 기자 shagger1207@

벼농사도 자율주행 시대

SKT, 대동공업과 ‘자율주행 이앙기’ 국내 첫 상용화 ‘실시간 측위 기술’ 센티미터급으로 작업 정밀도 높여

SK텔레콤이 이동통신기술을 활용해 자율주행 농기계를 상용화했다. 고령화와 일손 부족 등 농촌 문제 해결에 앞장설 것으로 기대된다.

SK텔레콤은 국내 1위 농기계 제조사인 대동공업과 함께 ‘실시간 이동 측위(RTK: Real Time Kinematic)’ 기술을 활용한 자율주행 이앙기를 개발·상용화했다고 15일 밝혔다.

논은 일반 도로와 달리 바닥이 고르지 않고 고인 물 때문에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정확한 이앙을 위해서는 숙련된 기술과 집중력이 요구된다. 자율주행 이앙기는 농부가 별도로 기계를 조작하지 않아도 모터를 정확하게 따라가며 모판의 모를 눈에 옮겨 심는다.

SK텔레콤은 자율주행 이앙기 상용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이동통신 기반의 실시간 이동 측위 기술 ‘RTK’를 이앙기에 적용하고 연구해왔다. RTK는 위성항법 시스템 GPS와 IoT 전용 통신망 ‘LTE-M’에서 받은 위치정보를 활용해 이앙기 작업 정밀도를 센티미터급으로 높인다.

이앙작업이 자동으로 이뤄지면 농업의 생산성이 올라간다. 자율주행 이앙기는 △직진 유지 △모 간격 유지 △정밀 비료 살포 등 3가지 핵심 기능을 탑재해 이앙작업 속도가 떨어지더라도 전문가 수준의 작업이 가능하다.

농부는 이앙기가 자율주행하는 동안 모판 운반 등 다른 작업이 가능해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 벼의 생육에 큰 영향을 미치는 모 간격 유지나 비료 살포도 정확하게 수행해 수확량 향상도 기대된다.

SK텔레콤과 대동공업은 국내 농기계 선진화를 위한 연구협력을 이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양사는 애그리테크를 통해 농촌 살리기에 나설 방침이다. 애그리테크는 농업(Agriculture)과 기술(Technology)을 결합한 신조어로 첨단기술의



SK텔레콤과 대동공업이 공동 개발한 자율주행 이앙기를 탄 농부들이 모판을 운반하고 있다. 사진제공 SK텔레콤

도움으로 농업 분야에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비즈니스를 말한다.

최근 발표된 ‘2018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에 따른 농업 포기과 전업 등으로 전년 대비 농가 인구는 10만 7000명(-4.4%) 감소했으며, 2014년 조사 이후 4년 만에 100만 명이 줄었다. 농촌 고령화는 청년농업·귀농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다.

SK텔레콤은 대동공업과 스마트 농기계의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 국내 농기계 제조사들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일 계획이다.

박진호 SK텔레콤 ICT기술센터장은 “농업에 ICT를 접목하면 누구나 손쉽게 농기계를 다룰 수 있어 농업 생산성이 높아진다”며 “이를 통해 농촌이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 해결은 물론이고 1차 산업의 4차 산업화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창욱 대동공업 대표는 “농민들의 반응이 좋다”며 “자율주행 이앙기가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다양한 농기계에 ICT가 적용되면 농업에 혁신적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범근 기자 nova@

비트코인 상승에 가상화폐 거래량 급증

업비트 등 거래소 수수료 수익 쾅쾅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코인 거래소를 운영 중인 기업들의 수수료 수익도 급증하고 있다. 거래량 1위를 기록한 업비트(운영사 두나무)는 일일 거래량이 1조5000억 원을 상회해 하루 동안 고객들에게 받은 수수료가 8억 원에 가까운 것으로 추정된다.

15일 가상화폐 통계 사이트 코인힐스에 따르면 업비트의 일일 거래량은 총 1조 5604억 원(16만4492BTC)을 기록했다. 국내 2위를 기록한 빙썬도 1조3527억 원

이었으며, 코인원 2716억 원, 코빗 976억 원, 고팍스는 566억 원이었다.

최근 코인 시장은 비트코인이 직전 저점 대비 150% 이상 상승하면서 거래량 또한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가상화폐 통계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글로벌 24시간 거래량이 1077억6300만 달러(약 128조978억 원)를 기록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앞서 지난해 1월 글로벌 가상화폐 시가총액이 8000억 달러를 기록했을 당시 글로벌 24시간 거래량은 710억 달러

로, 이보다도 300억 달러 이상 증가한 것이다.

비트코인을 비롯해 리플(XRP), 이더리움(ETH), 이오스(EOS) 등 대부분의 코인이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고, 이와 함께 거래량 증가가 동반되고 있는 것이다.

업계에선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코인 거래소의 수수료 수익도 크게 늘어났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예컨대 업비트의 하루 거래량인 1조5604억 원 중 업비트의 기본 수수료 수익이 0.05%인 것을 단순 계산하면, 사용자가 업비트에 지불한 수수료 비용은 총 7억8000만 원인 셈이다. 다만 이는 영업이익률로 단순 계산한 것으로 일정 수준의 운영비를 넘어서 이후 실제 수익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김우람 기자 hura@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아이가 있는 곳 어디에나, 어디에도 없던 어린이집을 짓습니다

육아의 부담이 출산의 기쁨을 막지 않도록
지역의 환경이 보육의 한계가 되지 않도록
어린이집 구하기가 짐이 아닌 힘이 되도록

하나금융그룹이 어린이집 100호 건립을 통해
엄마, 아빠들에게 육아의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함께가 힘이다.
하나가 힘이다.



하나금융그룹 민관협력 국공립어린이집 1호 거제시 '아주하나어린이집' 개원
하나금융그룹은 어린이집 100호 건립으로 각 지역의 육아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시내면세점 더 늘린다고?... “파이만 쪼개는 꼴”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시내 면세점 6곳을 새로 허용하면서 면세 사업권을 남발하자 면세점 업계는 “정체된 시장에 경쟁자만 늘어나는 꼴”이라는 불멘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소비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서울 1개, 인천 3개, 광주 1개 등 대기업 시내 면세점 특허 5개를 추가 발급하고, 시내면세점이 없는 충남에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특허 1개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전국 시내면세점은 총 26개가 되며 이 가운데 서울에만 16개가 몰리게 된다. 여기에서 이달 말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까지 개장이 예정되어 있어 면세 시장의 과열 경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면세 사업은 상품을 사들여 되파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의 경쟁력은 ‘상품 구성’과 각종 ‘할인 혜택’에서 나온다. 관광객이 선호하는 브랜드를 유치해 경쟁 면세점보다 얼마나 저렴하게 파느냐가 면세점의 경쟁력이다. 운영하는 면세점이 많을수록 바이퍼와가 높아져 보다 저렴하게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현재 면세 시장에서 매출의 상당 부분은 중국인 보따리상에 가서 나오는데 그들이 주로 사는 상품은 명품과 화장품”이라며 “똑같은 상품도 면세점 매출이나 규모에 따라 공급되는 상품의 종류가 달라지는데 면세점을 추가로 운영하게 되면 보따리상에게 인기 있는 상품을 더 저렴하게, 더 많이 들여놓을 수 있게 되니까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해도, 면세점 하나 운영할 때 드는 비용이 어마어마한데 이를 감수할 곳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관광산업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재부, 소비·관광산업 활성화 위해 서울·인천·광주에 대기업 5곳 추가 서울 16개 몰리며 과열경쟁 불가피 기존 ‘롯데·신라·신세계’ 쏠림 우려



현대백화점면세점. 사진제공 현대백화점

면세점만 늘어나면 한정된 시장에서 경쟁만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면세점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재부가 지난해 전체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1535만 명으로 전년 대비 15.1% 늘었다고 하는데, 2017년은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관광객 수가 절반으로 줄어든 해다. 기저효과에 따른 성장일 뿐 평년 대비 관광객이 늘었다고 보긴 어렵다”며 “면세점 실적 증가는 보따리상 매출 증가 때문이지 관광객수가 개선된 것이 아닌데 시내 면세점을 늘리면 시장 플레이어만 늘어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면세 사업에 새롭게 진출하는 대기업은 찾기 어려울 것이라 관측도 나온다.

면세점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화갤러리아가 면세 사업권을 반납하고 손을 댄 상

황에서 면세점 운영 경험이 없는 기업이 신규로 진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결국 기존 면세점 빅3가 신규 사업을 나눠 갖게 될 공산이 크다. 이 경우 빅3에 대한 매출 의존도만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전체 면세점 매출의 90%가량이 빅3 면세점에서 나온다.

빅3 외에 지난해 면세 사업을 시작한 현대백화점이 서울 시내면세점을 추가로 운영할지에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그러나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올해 1분기 236억 원의 적자를 낸 만큼 입찰 참여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현대백화점면세점 측은 “관세청 공고가 나면 검토 후 입찰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충남지역 면세 사업권이 부여된 중소·중견 업체도 면세점 확대 정책을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중소·중견 업체 면세점 관계자는 “충청권 관광

객, 공항 수요 등을 고려해 봤을 때 이점이 없을 것 같아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지방이 아니라 서울에 시내면세점 사업권을 준다고 해도 경쟁만 더 치열해질 뿐이고, 여러 제반 사항을 고려할 때 입찰 참여 업체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동화면세점, SM면세점 등 중소·중견 면세점은 적자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면세점이 늘어나면 경쟁이 활발해지고 할인 정책도 많아져 좋을 수 있겠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똑같은 관광 시장의 파이만 나눠야 할 뿐”이라며 “현재도 서울에만 시내면세점이 13개인데 업계에서는 롯데 3개, 신라·위커편·동화 각 1개씩 등 6개 정도 있던 때가 가장 적정했다고 볼 정도”라고 말했다. 박미선 기자 only@



309개 다이아몬드 박힌 시계 롯데백화점은 28일까지 소공동 본점, 잠실점, 대구점에서 ‘2019 럭셔리 워치&주얼리 페어’를 열고 스위스 명품 시계 브랜드 ‘에거 크로트르’에서 출시한 6억 원대 ‘마스터 그랑 트래디션 투르비옹’과 3억 원대 ‘마스터 그랑 트래디션 투르비옹 실린더락’을 선보인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제공 롯데백화점

“외국인 관광객 잡아라” 롯데-신세계 ‘명동대전’

1분기 380만 명 ‘역대 최대’ 롯데백 ‘K-팝 문화공간’ 신세계면세점 K패션 론칭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롯데와 신세계가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서울 명동 한복판에서 이들을 유치하기 위한 대결을 벌인다. 롯데는 소공동 면세점 인근에 K팝 이벤트 공간을 만들어 외국인 관광객 몰이에 나섰다, 신세계는 본점 면세점에 K뷰티에 이어 K패션 브랜드를 대거 유치해 상품 다각화에 나섰다.

15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 1~3월 외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1분기보다 14.1% 증가한 약 380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이 시작되기 전인 2016년(359만 명)과 2017년(370만 명) 1분기보다 높은 역대 최고 기록이다. 중국 내에서 온라인을 통한 단체관광 상품이 판매가 허용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별 관광객과 동남아 등 다른 지역 방문객만으로 달성한 기록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면세점 역시 호황을 맞고 있다. 최근 관세청이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국내 면세점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7% 증가한 5조6189억 원으로 1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보였다.

이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을 사로잡기 위한 유통업계의 마케팅도 한층 치열해졌다. 특히 롯데와 신세계는 외국인 가장 많이 찾는 명동 상권에서 외국인 유치를 위한 맛대결을 펼친다.

롯데백화점은 명동 롯데면세점 인근에 ‘K-팝 복합문화공간’을 만들어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다. 17일 미디어 콘텐츠 제작업체 CJ ENM 등과 손잡고 영플라자 지하 1층에 ‘팔레트(Palette)’를 오픈하는 것.

첫 번째 이벤트로는 남자 아이돌 그룹 ‘뉴이스트’를 초청해 17일부터 내달 13일까지 팬들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한다. 행사 기간 뉴이스트의 미공개



신세계면세점 명동점에 정식 매장을 내는 의류 브랜드 ‘아크메드라비’. 사진제공 신세계

뮤직비디오 비하인드 이미지 등을 선보이고 뉴이스트의 실물 소품들도 소개한다. 또한 재킷/뮤직비디오비하인드 포토북, 데스크 매트 외 다양한 굿즈도 독점 판매할 예정이다.

신세계는 상품 차별화를 통해 외국인의 다양한 취향을 공략한다. 화장품 등 K뷰티에 치우친 시장과 차별화 전략의 일환으로 K스트리트 패션 카드를 꺼내든다. 이를 위해 개점 3주년을 맞아 신세계면세점 명동점에 리뉴얼을 통해 K패션을 대거 유치한다.

팝업스토어에서만 만날 수 있었던 국내 브랜드 아크메드라비(ACME DE LA VIE)와 날디 등을 정식 매장에서 새롭게 선보인다. 아크메드라비는 3월 포털 검색어 면세점 카테고리 톱10 중 하나로 꼽힐 정도로 인기몰이 중이다. 또한 의류잡화 브랜드 키르시(KIRSH)와 앙트레브(ENTRE REVES), 슈즈 브랜드 액셀시오르 등 신규 브랜드도 새롭게 문을 열었다.

신세계 면세점 관계자는 “기존 면세점의 경우 외국 브랜드 및 명품 브랜드가 많았고, 대부분 비슷해 아이덴티티가 적었다”면서 “우수 한국 브랜드를 발굴하는 한편 차별화에 나서 다국적 고객을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h@

‘최대 90%’ 저렴한 이마트 와인장터

16~22일 1000여 품목 할인

이마트가 올해 첫 와인장터를 연다.

이마트는 16일부터 22일까지 전국 이마트 142개 지점에서 올해 첫 와인장터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마트 와인장터는 국내 최대 규모의 와인 축제로 1000여 품목 70여만 병의 상품을 행사 가격으로 판매하며 할인율은 30~90%다.

먼저, 가성비 와인으로 1만 원 이하 와인 150여 개 상품을 준비했다. 주요 상품으로는 ‘트리오 까버네소비농·멜롯·샤도네이’를 각 9900원, ‘간디 모스카토 IGT’ 6800원, ‘2% 스위트 화이트’ 5000원 등이 꼽힌다.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1만~2만 원 실속 와인으로는 ‘에고메이’ 2만 원, ‘로스 바스코스 까버네소비농 그랑귀베 20’ 1만 6800원, ‘운두라가 시바리스 까버네소비농·멜롯’을 각 1만 원에 준비했다.

프리미엄 와인도 초특가로 선보인다.

‘토마시 아마로네 델라 발폴리첼라 클라 시코’ 6만 원(정상이 15만 원), ‘이스카이’ 5만 원(정상이 11만 원), ‘베리저 루미너스 샤도네이’ 5만 원(정상이 12만 원)이 대표 상품이다. 또한 흡파티족을 겨냥한 1.5l 매그넨 사이즈 상품은 상품 수를 기



존보다 3배 늘린 36종 준비했다. ‘에고메이2015’, ‘샤또 티올리’는 각각 4만 원, ‘샤또 다리꼬’ 5만 원, ‘앙드레 끌루에상파 뉴실버 브뤼’ 8만 원, ‘피치니 메모로’ 2만 원 등이다.

상품 생산이 중단되거나 수입이 종료된 상품에 대한 브랜드 고별전도 진행한다. ‘슈르즈폴라즈’ 9900원, ‘까사도 모렐라스 그랑리제르바98’ 2만 원, ‘드 보톨리DB 셀렉션쉬라즈’ 8200원 등으로 이들 상품은 이번 기회가 아니면 국내에서 다시 구매할 수 없어 인기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마트가 와인장터 운영 상품과 물량을 확대하는 이유는 침체됐던 와인 시장이 다시 살아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마트의 와인 매출은 2017년 4%가량 줄었지만 지난해 16.4%, 올해 1~4월 3.5%로 2년 연속 상승했다.

반면 2017년까지 두 자릿수 신장세를 보이던 수입 맥주는 지난해 -4%, 올해 1~4월 -6%의 매출 감소를 보이고 있다.

이마트 명운진 와인 바이어는 “과거 수입맥주 공세에 주춤했던 와인 시장이 다양성을 중시하는 트렌드에 힘입어 다시 주류 시장의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와인 입문자부터 마니아층까지 다양한 소비자 니즈에 맞는 새로운 와인을 지속 선보일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박미선 기자 only@



사진제공 해태제과

‘전자코’로 만든 여름맛 ‘오예스 미숫가루 라떼’

해태제과가 지난해 3개월간 400만 개 완판을 기록한 ‘오예스 수박’의 인기를 이어가기 위해 올여름 전락상품으로 한정판 ‘오예스 미숫가루 라떼’를 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전통 음료를 젊은 감각으로 재해석한 뉴트로 제품 ‘미숫가루 라떼’에서 착안해 내놓은 신제품이다.

전국에 유명 맛집의 미숫가루 라떼를 연구원들이 직접 사서 맛보고 2030세대가 선호하는 공통된 맛을 찾았다. 제품 탄생의 또다른 주역은 ‘전자코’로 불리는 ENS(Electronic Nose System) 장비로, 사람에 비해 후각이 1000배 이상 예민해 맛을 좌우하는 향의 미세한 차이를 구별할 뿐만 아니라 향 분석을 수치로 표출화할 수 있다.

이 제품은 지난해처럼 400만 개만 한정 생산할 계획이다. 해태제과 관계자는 “시즌 한정은 고객과의 약속이어서 추가 공급 요청에도 사전 계획된 양만 생산했다”며 “희소성이 있는 만큼 더 맛있게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KB證 발행어음 사업 인가... 시장 규모 10兆 성장 전망



**금융위, 단기금융업 인가 승인
한국투자·NH투자증권 이어
이르면 내달 초 발행어음 판매**

금융위원회가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를 승인하면서 발행어음 시장이 커질 전망이다.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이 양분하고 있던 시장에 KB증권이 가세하면서 이제 시장은 3파전이 됐다. 지난해 8조5000억 원이던 시장 규모는 KB증권의 가세로 올해 최대 10조 원으로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제9차 정례회의를 열고 KB증권 단기금융업 인가를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KB증권은 2년간의 노력 끝에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에 이어 발행어음업 3호 사업자가 됐다. 이미 전산 시스템과 상품 구성 및 판매전략 등에 대한 준비가 완료된 만큼 금융투자협회의 약관 심사를 마치는 대로 이르면 6월 초에 발행어음 판매를 개시할 예정이다.

KB증권 관계자는 “발행어음 상품을 WM 고객기반 확대를 위한 전략상품으로 육성할 계획”이라며 “동시에 조달된 자금을 통해 기업들에게는 기업금융 최강

자인 KB증권의 노하우를 접목해 기업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IB솔루션을 제공, 기업과 동반성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발행어음 판매 목표치는 연말까지 2조 원 수준으로 설정했다. 조달 및 투자시장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계획이며 발행어음 금리는 동일 등급 회사채 금리, 유사상품 및 경쟁사 금리 등을 참고해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상품구성은 원화·외화 수시식, 약정식 상품을 비롯해 적립식 상품도 출시할 예정이다. 일정 조건을 충족한 고객에게는 특판 상품도 계획 중이다. 발행어음 사

업은 자금부에서 사업관리를 담당하게 되며 IB부문이 기업금융 관련 업무 및 부동산 자산의 운용을, IPS본부 내 상품기획부에서 판매 및 마케팅을 맡을 예정이다.

특히 발행어음 사업개시로 CIB복합점포를 통한 중소기업 자금 공급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

KB증권은 관계자는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에 이어 세 번째로 발행어음 사업에 진출하는 만큼, 전사의 역량을 모아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출시할 것”이라며 “발행어음 시장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문선영 기자 moon@

증권사 2분기 실적, 트레이딩 손익에 달려

美·中 무역협상 리스크 부각되며
글로벌 변동성·기업 실적 우려 커져
미래에셋대우·NH투자증권 등 5곳
순익 전년비 5.9% ↓ 5291억 전망

주요 증권사 2분기 실적 컨센서스 (단위 : 억 원, %)

종목명	2018년 2분기			2019년 2분기 추정치			전년 동기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미래에셋증권	2,359	1,269	1,090	2,904	1,468	1,210	23.1	15.7	11.0
키움증권	1,659	859	793	1,825	896	673	10.0	4.3	-15.1
NH투자증권	3,396	1,652	1,168	3,252	1,498	1,083	-4.2	-9.4	-7.2
삼성증권	3,100	1,319	1,000	2,699	1,145	840	-12.9	-13.2	-16.0
미래에셋대우	5,074	2,130	1,571	4,686	1,813	1,485	-7.7	-14.9	-5.5

※출처 : 에프앤가이드

증권사들의 1분기 실적 호조 흐름이 이어질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2분기 들어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트레이딩 수익이 증권사 개별 실적을 판가름할 것으로 보고 있다.

1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1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4.5% 증가한 2186억 원을 기록했다. 분기 실적으로 역대 최고 성적인 동시에 업계 1위 기록이다. 미래에셋대우도 세전순이익(2247억 원) 기준으로 합병 이후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NH투자증권(1716억 원), 미래에셋증권(1413억 원) 역시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 성적표를 받았다. 키움증권도 순이익이 지난해보다 81.48% 증가한 587억 원을 기록해 ‘어닝 서프라이즈’를 연출했다. 삼성증권의 경우 1분기 순이익이 117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했지만 시장 컨센서스를 웃도는 호실적을 기록했다. 이 밖에 하

나금융투자(625억 원)와 KB증권(873억 원) 등도 모두 양호한 실적을 거뒀다.

올 들어 글로벌 증시가 회복된 것이 증권사 실적 호조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강승건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증권업계가 전반적으로 증시가 호전되면서 트레이딩 및 상품 손익이 큰 폭으로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1분기 실적 잔치에도 증권업계의 2분기 실적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최근 미·중 무역협상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면서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은 물론 기업실적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 등 주요 증권사 5곳의 올해 2분기 연결 순이익 컨센서스는 전년 동기 대비 5.9% 감소한

5291억 원이 될 것으로 집계됐다.

업계에서는 운용 손익이 2분기 증권업계 실적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1분기 실적은 증권업계가 전반적으로 좋았지만, 증권사별로 시장 의존도 차이가 있어 트레이딩 손익 관리가 관건이 될 것이라 설명했다. 백두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미래에셋대우의 경우 일회성 이익에 가려진 증시 변동성 확대에 따른 트레이딩 및 연결자산 관련된 실적 불확실성은 부정적”이라고 짚었다. 반면 삼성증권의 경우 상대적으로 이익 변동성이 낮을 것이라 분석했다. 강 연구원은 “경쟁사 대비 주식 관련 익스포저가 적어 1분기 큰 폭으로 개선된 트레이딩 및 상품 손익이 2분기에도 일정 부분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미래SCI, 빗내서 인수한 70억대 부동산

‘임대사업’ → ‘자가사용’ 변경

최근 수년간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대의 순손실은 물론 영업적자를 기록 중인 미래SCI가 자산의 13%에 달하는 70억 원대 부동산을 취득해 이목이 쏠린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미래SCI는 15일 역삼아르누보시티 1801호를 70억 원에 인수, 24일 등기를 한다. 이번 계약 건은 작년 11월 14일 이뤄진 것으로 관련 최초 공시는 12월 3일 나왔다.

미래SCI는 거대 대금 마련을 위해 작년 11월 13일 22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발행했다. 보유 현금 13억 원과 발행 CB 중 13억6000만 원어치를 대용 납입해 계약금을, 100% 자회사 플러스페이퍼가 대출 계약으로 마련한 43억4000만 원으로 잔금을 지급했다.

15일 공시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부동산의 양수 목적과 공동인수자의 변경이다. 회사는 최초 인수 목적을 신규 임대사업을 통한 수익 창출이라고 밝혔지만 정정 공시에서는 ‘자가사용’으로 변경했다. 또 공동인수자인 플러스페이퍼가 에스씨아이에셋으로 변경됐다.

1984년 설립된 미래SCI는 석유화학 완제품을 매입해 수출하는 전문무역업과 바닷모래를 찾아 건설자재로 판매하는 것을 주요사업으로 한다.

최근 6년간 최대주주가 7번 변경됐으며 작년 5월 허버가 유상증자 신주를 취득하며 최대주주에 올랐다.

최근 4년간 실적을 보면 매출은 2015년 93억 원에서 지난해 576억 원으로 외형성

미래SCI 주가 추이 (단위 : 원)



장세를 보인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2015~2016년 20억 원대 흑자에서 2017~2018년에는 각각 43억 원의 적자로 돌아섰다. 순이익은 더욱 악화돼 2015~2017년 40억~60억 원대 손실에서 지난해에는 214억 원으로 폭증했다. 과거 인수한 기업들에 대한 자본 자산 손상차손과 대손상각 등이 대거 발생한 탓이다.

자생적인 영업 능력이 미흡하다 보니 미래SCI는 증자와 사채 발행, 외부 차입 등으로 운영자금을 마련하고 있다. 작년 한 해에만 유상증자로 110억 원, 사채로 200억 원, 차입금으로 669억 원을 조달했다. 차입금과 사채 일부를 갚아 재무활동에 따른 현금흐름은 345억 원 플러스를 보였다. 유증 대금을 제외하더라도 200억 원대의 빚이 더 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래SCI가 신규 취득한 부동산을 수익 창출에 활용하지 않고 자가 사용한다는 점은 언뜻 이해하기가 어려운 대목이다. 이에 대해 회사 본사에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조남호 기자 spdran@

“아일리아 시밀러, 연내 美·유럽 수출 전망”

기업 주식 담당자 주담과 Q&A

삼천당제약

삼천당제약이 미국·유럽 지역의 SCD 411 수출을 본격화한다. SCD411은 황반변성 치료제인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로, 삼천당제약은 3월 일본 SENJU제약과 독점판매권과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최근 일본 제약사와 SCD411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수익은?”

“이번 계약은 독점판매권에 대한 마일스톤과 공급계약으로 나눌 수 있다. 마일스톤은 기술 수출에 따른 금액이 아니라 해당지역에서의 독점권 판매에 따른 이익이며, 해당금액을 통해 회사는 임상비용을 충당할 계획이다. 총 4220만 달러(약 477억 원)의 마일스톤 중 올해 선급금 220만 달러(약 25억 원)를 포함해, 하반기에 있

삼천당제약 주가 추이 (단위 : 원)



을 FDA IND(신약허가서) 신청까지 1320만 달러(약 150억 원)를 받게된다. SENJU사는 일본에서 제품등록 후 2023년부터 향후 10년간 총 1조6000억 원의 매출액을 예상하고 있다. 삼천당제약은 매출총이익의 50%(Profit Sharing)를 받을 수 있는 구조로, 판매에 따라 예상되는 최종이익은 매출액 대비 30% 이상이다.”

“미국, 유럽 수출 가시화 시점은?”

“3상 IND 제출을 목표로 하는 11월 이전에는 국가별 계약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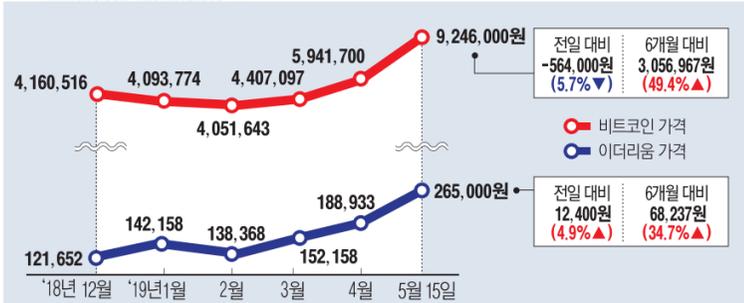
한다. 두 지역 아일리아 시장 규모는 일본 시장(5000억 원 규모)에 비해 각각 4~9배 이상이다. 관련 업체에서 목표 매출액이 20~25%라고 가정할 때, 당사가 받을 독점권 판매에 따른 마일스톤은 최소 SENJU사 이상이 될 전망이다.”

“올해 실적 전망은?”

“안과 부문에서의 매출성장 및 이익은 연구개발 시장과 연계돼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최근에 개발된 국내 최초 개발 안질환 전문 예측·예방 검사인 마이아이진(MyEyeGene)은 차별화된 서비스로 주목받고 있다. 비안과 부문은 고지혈증, 고혈압 치료제 등 시장 규모가 크고 수익성이 좋은 품목에 대한 개발 및 판매확대 전략을 통해 매출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바이오시밀러 부문에서도 SENJU사를 포함해 미국 및 유럽사와의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금 입금으로 당사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기대한다.” 오연기 기자 yerin2837@

bithumb 빗썸

빗썸 지수 (2019년 5월 15일 17:00, KST)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비트코인캐시	434,600	-50,400 (10.4%▼)	모네로	96,650	-250 (0.3%▼)
리플	500	37 (8.0%▲)	비트코인골드	24,770	-1,720 (6.5%▼)
라이트코인	106,000	-3,400 (3.1%▼)	이더리움 클래식	7,910	100 (1.3%▲)
대시	165,800	-1,900 (1.1%▼)	퀀텀	3,453	143 (4.3%▲)

전 세계 1등 가상화폐 거래소

임직원 주도 '희망체인 봉사단' 다양한 활동

미래에셋대우

미래에셋대우는 기존의 수동적인 봉사활동이 아닌 '임직원 주도의 혁신적 사회공헌'이라는 타이틀 아래 새로운 형태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해 이를 실천할 '희망체인리더' 1기 발대식을 열고 아이디어 워크숍을 통해 10개의 사회공헌 대표모델을 선정해 그해 8월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발대식 이후 부문·본부별 희망체인리더 인솔하에 현재까지 약 30개의 사회공헌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 다문화 요리 교실 프로그램'이다. 베트남, 중국, 러시아 등의 다문화 가족, 청소년들에게 각 나라의 문화를 소개하고 그 나라의 대표 음식을 요리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다. 나라별 역사와 문화 등을 서로 경험함으로써 다양한 이웃과 교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봉사활동에 참여했던 한 임직원은 "밝은 친구들과 함께 음식을 만들며 보냈던 시간이 어른인 본인에게도 즐겁고 행복한 추억으로 남았다"며 "경험해 보지 못한 각 나라의 다양한 문화를 알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도 유익한 시간이었던 만큼 앞으로도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2018년 하반기에 입사한 신입사원들이 직접 봉사활동을 기획해 '꿈과 희망을 코딩하는 미래블록'이라는 주제로, 교육 기회가 적은 지역아동센터



미래에셋대우 신입사원들이 '꿈과 희망을 코딩하는 미래블록'이라는 주제로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초청해 미래에셋대우 컨퍼런스홀에서 코딩교육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미래에셋대우

아이들을 대상으로 코딩교육과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신입사원들의 아이디어로 기획하고 참여하는 2019년 첫 사회공헌활동인 만큼 많은 임직원의 관심과 응원을 받았다. 또한 2019년 미래에셋대우 희망체인 봉사단은 임직원의 환경 인식 개선과 기부문화 활성화를 목표로 활동할 예정이다.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은 "따뜻한 자본주의를 위한 미래에셋대우의 사회공헌활동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새로운 기업문화로 발전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열린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희망체인리더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軍·소외이웃에 '사랑나눔 행복' 실천

하나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는 군부대와 사회복지시설 등 곳곳에서 후원활동을 펼치며 사회공헌에 앞장서고 있다.

하나금융투자는 경기 양평에 소재한 제20기계화보병사단(결전부대)과 재매결연을 하고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2016년 10월 지속적 관계 유지 및 상호 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부터 매년 부대 창설 기념일에 이진국 사장과 주요 임원들이 부대를 방문, 발전기금을 전달하고 있다. 군장병을 위한 경제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올 1월엔 설날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및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 체험 행사인 '사랑나눔 행복 더하기' 행사를 실시했다. 서울특별시립 아동상담치료센터의 아동과 청소년, 교사 등 총 120여 명과 하나금융투자의 임직원들은 롯데월드타워에 있는 서울스카이 전망대와 아쿠아리움 등 명소들을 관람하고, 롯데월드어트랙션에서 놀이기구를 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와 더불어 중앙대학교 현열센터와 함께 '하나금융투자 사랑나눔 팔걷기' 현열캠페인도 펼쳤다. 현열 인구의 감소로 혈액 부족 사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본사의 임직원들은 불안정한 혈액의 수급에 보탬이 되고자 적극적으로 참여, 생명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채취된 혈액은 다른 의료기관에도 공급돼 필요한 환자들에게 소중하게 사용될 예



이진국(오른쪽) 하나금융투자 사장과 황유성 20사단 사단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하나금융투자

정이다.

하나금융투자는 청소년 금융교육에도 앞장서고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과 함께 '여의도 경제버스'라는 학습투어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참가 학생들은 행사를 통해 여의도에서 금융 및 경제 현장을 직접 체험할 수 있으며, 하나금융투자는 학생들에게 생소한 금융 및 증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300회를 넘는 여의도 경제버스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금융지식과 건전한 금융생활 습관을 함양하는 과정으로 자리 잡고 있다.

'따뜻한 금융캠프' 244개 학교 1만여명 참가

신한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는 '금융의 힘으로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모토 아래 본업과 연계한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고객 수익률로 직원을 평가하는 제도를 2012년 업계 최초로 도입, 금융 본업을 통해 사회에 이바지하고 있다. '고객수익률 평가제도'는 주식과 금융상품까지 포함한 고객의 총자산 포트폴리오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투자자는 전체 자산에 대한 포트폴리오 종합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거액

자산가들과 동일한 방식의 특화된 PB식 자산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신한금융투자는 전체 PB를 대상으로 월, 분기, 연간 단위로 고객 총 자산 수익률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우수직원 포상과 인사고과뿐 아니라 성과급까지 확대했다

신한금융투자의 '고객수익률 평가제도'는 투자자와 임직원, 그리고 회사의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의 수단이다. 인사평가는 물론 성과급까지 연동되는 등 신한금융그룹이 지향해 온 고객 중심의 영업문화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금융 본업을 통해 사회를 이롭게 한다는 '따뜻한 금융'의 대표적 사례인 '고객수익률 평가제도'는 증권업계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매김하며 사회 전반적으로 투자문화의

개선을 이끌어냈다.

신한금융투자의 '따뜻한 금융캠프'도 눈길을 끈다. 2012년 4월 시작된 '따뜻한 금융캠프'는 신한금융투자가 금융감독원과 함께 초·중·고등학교와 연계해 교육 지원 및 현장 견학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5월 현재까지 244개 학교 1만2455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따뜻한 금융캠프'는 미래의 경제 주체인 청소년들에게 자본시장의 흐름과 기본적인 금융 경제 교육 및 금융투자업 관련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2018년에 1만 50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등 높은 호응을 얻었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본업을 통해 '진심'을 전



신한금융투자가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따뜻한 금융캠프'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신한금융투자

달하는 사회공헌활동에 나서고 있다"며 "고객이 필요로 하는 금융상품을 적시에 공급하는 것으로 '따뜻한 금융'도 실천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외지역 청소년 위한 '무지개교실' 운영

KB증권

KB증권은 모두가 함께하는 내일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미래 세대 주역이 될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우선 KB증권의 대표 사회공헌프로그램인 '무지개교실'을 통해 교육 및 문화적 혜택을 받기 어려운 아이들을 적극 지원한다. '무지개교실'은 소외지역 초등학교 분교 및 지역아동센터 등에 학습공간 개보수, 도서관 환경 조성, 도서 지원 등을 통해 더 나은 학습환경을 조성하는 활동이다.

KB증권은 2009년부터 국내 11곳과 해외 빈곤국 3곳 등으로 점차 지원을 넓혀 나가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제주도 서귀포시 소망 지역아동센터의 도서관 조성, 베트남 호아빈 소재 흥영우이 초등학교의 '무지개교실' 조성 등을 완료했다.

또 'KB역사탐험대'를 통해 청소년에게 올바른 역사인식과 금융지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으며 금융업 특성을 살려 2015년부터 초·중·고등학교와 결연을 맺고 청소년들에게 눈높이에 맞는 금융교육을 실시하는 '1사1교 금융교육'도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KB박스'와 '핸즈온(Hands-On)' 활동 등을 통해 '참여형 사회공헌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해 5월과 올해 3월에도 KB증권은 '핸즈



KB증권 임직원들이 기후난민 어린이들을 위해 희망을 담아 직접 그린 티셔츠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KB증권

온' 활동인 '희망T 캠페인'을 진행, T셔츠 2000여 벌과 영양결핍 치료식 7000개(1개당 7일분)를 네팔, 몽골, 파키스탄 등 해외 지역에 전달했다.

'사랑의안마서비스'를 통해 지역 상생과 더불어 일 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2010년 시작된 이 활동은 시각장애인 안마사(이하 헬스키퍼)를 직접 고용해 노인복지센터 등에 배치, 치매 어르신들과 연고 없는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는 사회공헌 활동이다.

헬스키퍼는 KB증권 직원으로 고용돼 일자리를 얻고, 어르신들은 안마를 통해 건강관리를 받으며, KB증권은 사회적 기업의 역할을 담당하는 '1석3조의 사회공헌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소임직원 참여 10년째 '드림이 봉사활동' 펼쳐

교보증권

교보증권은 2008년부터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드림이 사회봉사단을 창단해 어려운 이웃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드림이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드림이 사회봉사단은 '질 좋은 성장을 통해 존경받는 기업이 돼야 한다'는 경영철학을 가진 김해준 대표의 취임과 함께 시작됐다. 대표적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드림이 정기봉사활동', '창립기념일 드림이 특별주간 봉사활동', '자녀와 함께하는 봉사활동', '드림이 희망기부'가 있다. '정기 봉사활동'은 임직원의 거주 지역에 따라 전국 권역별 지정 복지단체 중 개인이 희망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매주 진행한다. 창립기념일 드림이 특별주간 봉사활동은 창립기념일인 11월 22일의 의미를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는 취지에서 전 임직원이 참여한다. 김치 담그기, 사랑의 도시락, 사랑의 빵, 무료급식 등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을 찾아가 봉사활동을 펼친다.

자녀와 함께하는 봉사활동에는 드림이 나눔제작, 드림이 문화재사랑, 드림이 따뜻한 밥상, 드림이 공원 돌보미가 있다. 드림이 나눔제작은 빵 만들기, 인형 및 크레파스 만들기 등 다양한 주제로 나눔 활동을 통해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봉사활동이다. 드림이 따뜻한 밥상은 방학 중 결식아동을 돕기 위해 گیا대책과 함께 진행한다. 임직원이 직접 작성한 격려카드와



3월에 열린 '드림이 나눔제작 크레파스 만들기' 참가자들이 환한 표정으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 교보증권

식량기트를 만들어 방학 중 결식아동에게 전달한다.

개인 기부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국내외 일대일 결연아동 후원 프로그램인 드림이 희망기부를 통해 2017년 7월 기준 국내아동 297명, 베트남 아동 96명을 지원했다. 4월에는 강원지역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재난복구를 위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1억 원을 전달했다.

김해준 대표는 "지속적인 사회공헌으로 사회의 꼭 필요한 곳에 행복한 꿈과 희망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다른 어느 기업보다 적극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39개 사내 봉사단, 농가 소득 증진 앞장

NH투자증권

NH투자증권이 농업·농민 지원에 특화된 다양한 사회공헌을 통해 '농가소득 5000만 원 시대' 앞당기기에 나섰다.

농협 계열사인 NH투자증권은 2010년 사장 직속으로 사회공헌단을 편제하고, 체계적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전국 영업망을 토대로 39개 사내 봉사단체가 교육에서부터 아동복지, 사회복지, 지역사업 등 지역별 특색에 맞춘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또 하나의 마을' 캠페인이다. 증권가에서 '기업금융(IB) 대부'로 불리는 정 사장은 이 캠페인을 통해 경기 파주시 문산읍 당동 2리 마을의 명예이장으로 활동 중이다. 회사는 정 사장을 필두로 소속 임직원이 명예이장과 명예 주민으로서 농번기 일손돕기, 농산물 구매 등 도농협동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정 사장은 이달 7일 명예이장으로서 해당 마을을 방문해 일손돕기에 직접 나서기도 했다.

매년 농가 지원을 위한 나눔 활동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폭염피해 마을에 양수기를 지원했고 올해 2월에는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로 강원도 산불피해 농민들을 위해 2억 원의 성금을 지원했다. 회사는 올해 여름에도 영등포 쪽방촌 삼계탕 행사



정영채(앞줄 오른쪽) NH투자증권 사장과 임직원이 7일 경기도 파주시 농가에서 모종을 심고 있다. 사진제공 NH투자증권

와 농산물 직거래장터 등을 계획 중이다.

'상생 마케팅'도 눈길을 끈다. 기업이 농산물 광고를 하고 그 광고 비용을 통해 농산물을 할인해 공급하는 사회공헌 활동이다. 농가에서 풍년은 동전의 양면이다. 풍년이 들면 공급과잉으로 인해 재배한 농산물을 모두 팔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간에 기업이 광고비를 지원하면, 농업인은 농산물을 더 싸게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어 폐기할 수밖에 없던 농산물을 모두 판매할 수 있다. NH투자증권은 2015년 배추를 시작으로 2016년 조류인플루엔자(AI) 파동 당시 닭고기를 지원했고, 올해는 설맞이 장터를 열고 다양한 농산물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저소득층 어린이 적성 개발·급식 후원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은 '사랑나눔, 행복나눔'이라는 주제 아래 유·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나눔 실천을 위해 임직원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매칭그랜트 제도'를 2013년부터 운영 중이다. 매칭그랜트 제도는 매월 임직원이 기부하는 금액만큼 회사에서도 동일한 금액을 일대일로 매칭해 사회공헌 사업의 기금을 마련하는 제도다.

이러 한국투자증권의 대표적 사회공헌 사업인 '꿈을 꾸는 아이들'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학업, 예술, 체육 분야에 재능있는 학생 50여 명을 선발해 특기, 적성 개발비를 매월 지원하는 장기 프로젝트다. 배움에 대한 꿈과 열정이 있지만 어려운 환경 때문에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의 재능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가장 만족도가 높은 후원 사업 중 하나다.

또 2013년부터 매년 겨울방학 기간 동안 학교 급식 중단에 따라 결식이 우려되는 전국 저소득층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급식비와 다양한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학습비를 지원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 참벗나눔 봉사단'은 2013년에 매칭그랜트와 더불어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로 출범한 사내봉사단이다. 이어 2008년부터 FC서울 프로축구단



'한국투자증권 어린이 경제교실'에 참가한 아이들이 경제 체험 활동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 한국투자증권

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문화적으로 소외된 아동들을 초청해 매년 '행복나눔 어린이 축구교실'을 진행하고 있다. 저소득층 자녀들을 초청해 금융회사의 특성을 살린 맞춤형 어린이 경제교육도 매년 실시한다. '어린이 경제교실'은 용돈기립장 작성 및 은행거래 요령 등 실생활에 필요한 금융활동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교육하는 방식이다.

저소득층 시설 아동들의 정서 함양과 창의적인 글쓰기 능력을 길러주고자 작년에는 전국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대상으로 '제2회 어린이 드림 백일장'을 개최하기도 했다. 수상한 학생들을 본사로 초청해 백일장 시상식을 열고 상장과 상금 및 꽃다발을 수여했다.

경제 꿈나무 21만 명 키운 '청소년 경제교실'

삼성증권

삼성증권은 올해로 14년째를 맞은 '청소년 경제교실'의 참여 아동수가 21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청소년 경제교실'의 선생님이 참여하는 대학생 봉사단 '야호'의 누적 구성원 수도 1500명(2019년 기준)을 돌파했다.

2019년에 활동하는 야호 10기 구성원들은 올 연말까지 전국 84곳의 사회복지기관에서 '청소년 경제교실' 강사로 활동하게 된다. 야호 멤버 3명으로 구성된 강의 팀이 매칭된 사회복지기관을 찾아가

'경제놀이터' 수업을 진행하는 식이다.

올해는 모두 1000여 명의 아동들이 수업에 참여하게 되며, 올 연말이면 '청소년 경제교실'을 수료한 아동들의 수도 누적 기준 21만 명을 넘게 된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청소년 경제교실"을 오랜 기간 지속할 수 있었던 비결은 올해로 10기째를 맞는 야호 멤버들 간의 끈끈한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한다"며 "또한 야호 구성원들을 멘토링하는 삼성증권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있다"고 말했다.

현재 삼성증권에는 10년째 야호 멘토로 활동 중인 선장군 지점장을 포함해 모두 9명의 야호 출신 임직원이 활약하고 있다.

이들은 삼성증권에서 개인고객 자산관리는 물론

디지털 마케팅, 파생상품 운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선장군 지점장은 "야호로 함께 활동했던 친구들은 회사에서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직원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야호 구성원들은 물론 '경제놀이터'를 수료한 아동들도 후배로 입사해 이들과 함께 경제교실 대축제를 개최하는 날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삼성증권 대학생 봉사단 '야호'의 구성원들은 1년간의 활동 기간에 '경제놀이터' 수업 진행을 하고 삼성증권이 주관하는 임직원 봉사활동, 임직원과의 멘토링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며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기회를 갖게 된다.



삼성증권 '청소년 경제교실'의 야호 임직원 멘토와 10기 신입 멤버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삼성증권

3년째 '100개 숲 만들기' 프로젝트 진행

KTB투자증권

KTB투자증권은 2017년부터 창립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임직원이 참여하는 숲 만들기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다.

환경단체인 노을공원 시민모임이 주관하는 100개 숲 만들기 프로젝트에 임직원이 참여하는 형태로 활동이 진행된다.

지난달 26일에도 KTB투자증권 임직원 100여 명은 창립 38주년을 기념해 상암동 하늘공원에서 '한마음 숲만들기' 행사를 개최했다. 최석중 KTB투자증권 사장과 임직원 100명은 이날 하늘공원에 묘목 200여 그루를 직접 심었다.

하늘공원은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을 덮어 만든 공원으로, 생태계 복원을 위해 나무심기 등의 활동이 필요한 곳이다.

행사에 참석한 KTB투자증권 관계자는 "하늘공원의 토양이 척박해 일 년 전에 심은 나무의 생존도 불확실하다"며 "일회성에 그치는 식목행사가 아닌 지속적으로 숲을 가꿀 수 있어야 의미가 있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또 매년 설날과 추석을 앞두고 KTB투자증권에서는 '사랑 나눔 경매' 행사가 열린다. 임원들이 보유한 애장품을 사내에 전시하고 전 임직원이 경매에 참여해 기부금을 마련하는 행사다. 경매를 통해 모집한 금



최석중 KTB투자증권 사장 등 임직원들이 창립 38주년 행사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KTB투자증권

액 전액은 아동복지시설에 기부한다.

1981년 5월 정부가 출자한 한국기술개발에서 시작한 KTB투자증권은 2008년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아 증권업에 진출했다. 현재 KTB자산운용, KTB네트웍, KTB PE, KTB신용정보 등 주요 계열사를 두고 있으며, 해당 계열사들은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KTB자산운용도 지난해 연말 서울역 무료급식소에서 '사랑의 빨간밥차' 배식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 회사도 대한적십자사 등에 매년 후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 행사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28년간 5000명에 장학금 65억 지원

대신금융그룹

대신금융그룹은 고 양재봉 창업자의 '기업이윤의 사회환원'이라는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상생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 양재봉 창업자는 특히 장학사업에 큰 관심을 두고 지원해왔다.

올해로 설립 28주년을 맞는 대신송준문화재단은 기본 재산 규모가 342억 원에 이르는 대형 재단으로 성장했다. 대신금융그룹이 주력하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장학사업은 효심이 지극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과 성적 우수학생을 선발해 1년치 수업료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매년 전달하고 있다. 대신금융그룹은 재단 출범 이후 2018년 현재 5020명의 학생에게 총 65억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대신금융그룹은 1996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의료비 지원사업 및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국민보건지원사업도 지속해서 추진 중이다. 기형아 성형을 비롯해 함몰, 피부암, 화상 환아까지 가정형편 때문에 수술이 어려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확대해 활발한 후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2004년 이후로 4억7000여만 원의 국립암센터 발전기금 및 학술연구 지원금을 전달했다.

양재봉 창업자에 이어 송준문화재단을 이끄는 이어룡 대신금융그룹 회장은 신뢰와 상생을 바탕으로 '나눔으로 성장하는 기업' 이미지를 구현하기 위해 그룹 차원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체계화해 추진해왔다.



이어룡(왼쪽) 대신금융그룹 회장이 나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해 사랑의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제공 대신금융그룹

단순 기부 활동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임직원과 대신금융그룹 고객의 참여를 유도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했다. 수재민 지원, 서해안 기름유출사고 재난복구 활동, 시각장애인 골프대회 개최, 연탄배달, 희망의 집짓기, 어린이 미니도서관 조성, 국제아동 돕기를 위한 모자 뜨기, 크레온-북 릴레이 등 임직원 참여 및 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대신금융그룹 신입직원은 입사하면서 사랑과 나눔을 먼저 배운다. 따뜻한 이웃사랑 실천과 '상생'의 가치 실현을 위해서이다. 또 대신금융그룹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을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인턴을 채용하고 있다.

발코니 확장·원목마루·불박이장 등 6000만원 추가 분양 당첨자 등골 빼는 '유상옵션'

냉장고·의류관리기까지 포함
"모두 선택하니 분양가의 6%"

최근 분양시장이 활기를 잃은 가운데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억 소리' 나는 분양가를 감당하는 것도 힘든 데 수천만 원에 달하는 옵션 비용도 준비해야 하니 당첨자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지난달 분양에 나선 디에이지 포레스트는 평균경쟁률 16.06대 1로 1순위 청약에 마감했다. 올해 1분기 서울 아파트의 초기 분양률(97.4%)이 2년 3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약조건 속에서도 선전했다.

단지의 분양가는 최저 11억 원대에서 최고 19억 원이다. 그러나 분양가와와는 별도로 당첨자가 부담해야 하는 유상옵션의 항목은 10가지가 넘는다.

내역을 보면 분양 아파트의 기본옵션이 된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을 비롯해

전기룩탑, 냉장고, 김치냉장고 등 가전제품이 포함돼 있다. 여기에 수입 원목마루, 의류관리기 등 가구도 유상옵션으로 제공했다.

분양가 14억1100만 원인 84㎡타입(1층) 당첨자가 유상옵션(84㎡타입 및 최고가 기준)을 모두 선택하면 총 4070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분양가가 9억 원을 넘어 중도금대출도 어려운 상황에서 수천만 원의 옵션 비용을 따로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지난달 초에 분양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힐스테이트 북위례의 유상옵션 조건도 만만치 않다. 발코니 확장을 해야 다른 유상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획한 것이다.

분양가 5억9710만 원인 92㎡타입(1층)을 예로 보면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불박이장 등의 유상옵션을 모두 선택했을 경우 옵션비용 합계는 3889만 7600원이 나온다. 분양가의 6.5%에 달하

는 금액이다. 1분기에 분양에 나섰던 e편한세상 광진 그랜드파크, 태릉 해링턴 플레이스 역시 분양가에서 옵션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5%를 넘었다.

e편한세상 광진 그랜드파크의 84㎡타입(1층) 기준으로 유상옵션을 모두 선택하면 6367만 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분양가 9억9900만 원의 6.4%에 해당하는 액수다.

건설업계에서도 과도한 유상옵션은 분양가만 올리는 것이라 질타가 나온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분양 물량을 보면 옵션이 너무 많이 붙는데 이는 결국 분양가만 오르는 것"이라며 "요새는 25평으로 방 3개를 만드는 시대이기 때문에 발코니 확장과 시스템 에어컨 정도는 필요하다고 판단되지만 그 외 품목들은 필수로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거제 빅아일랜드 현장 부지.

사진제공 거제빅아일랜드피에프비

세계 1위 되찾은 한국 조선업 거제 부동산 시장도 살아날까

지난해 선박수주 점유율 44%
조선사 몰린 경남 거제시 활기
올 1분기 아파트 거래량 575건
신도시 '빅아일랜드' 사업 속도

우리나라 조선업 수주량이 늘며 다시 세계 1위 타이틀을 되찾자 지방 부동산 시장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15일 영국 조선-해운 분석기관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별 선박 수주 실적에서 우리나라는 약 44%의 점유율로 7년 만에 세계 1위를 탈환했다.

특히 한국의 조선산업은 대표적인 고부가가치이자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는 LNG(액화천연가스)선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LNG선 전체 발주량 중 94%를 한국 조선업체에서 수주한 바 있으며 올해도 삼성중공업이 전체 16척 중 8척을 발주하는 등 활발한 수주가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업을 기반 산업으로 삼고 있는 도시들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조선소가 몰려있는 경남 거제시가 예전의 화려했던 모습을 되찾을지 주목된다.

구성현 기자 carlove@

거제는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등 굴지의 조선기업들이 위치한 곳으로 조선업의 활황과 함께 오랫동안 화려한 시기를 보내왔다. 하지만 수년 전 조선업의 불황으로 인해 거제는 최근까지 심각한 침체를 겪었고 지역민들의 소비심리 역시 크게 위축됐다.

이렇게 한동안 끄꽂이 얼어있던 거제의 시장 분위기는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조선업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거제시 아파트 거래량도 늘어나고 있다. 한때 분기당 300건대에 머물던 거제의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4분기 661건까지 치솟았고, 올 1분기에도 575건을 기록하는 등 좋은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고현항 항만재개발을 통해 아파트와 판매시설, 호텔 등으로 구성되는 해양복합신도시 '빅아일랜드' 조성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거제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삼성중공업 등의 선박 수주가 활발히 이뤄지면서 거제의 시장 분위기도 조금씩 살아나는 추세"라며 "아직은 소비심리가 위축돼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수년 후에는 수주 효과로 인해 다시 한 번 화려한 시기를 맞게 될 것이다"고 분석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장위뉴타운 3구역 15년 만에 조합설립 인가

'반쪽' 오명 딛고 동북권 새단장

장위뉴타운의 '막내' 격인 3구역 재개발 조합이 마침내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2004년 추진위를 구성한 지 15년 만이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총회를 통해 설립된 장위3구역 재개발조합은 9일 성북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통보받았다.

3구역 재개발은 서울 성북구 장위동 305번지 일대 6만6011㎡ 부지에 지하 2층-지상 29층, 1078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3구역 인근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현재 3.3㎡당 1500만~1600만 원 정도로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며 "지난해 확 오른 시세가 유지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시공사와의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된 장위6구역(1637가구)은파트너를갈아치우고 다시 속도를 올리고 있다. 6구역은 이르면 올해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내년께 이주할 전망이다.

장위뉴타운은 총 15개 구역으로 이뤄진



장위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도.

동북권 최대 규모 뉴타운으로 계획됐다. 하지만 서울시가 정비구역들을 지정 해제하면서 '반쪽짜리 뉴타운'이라는 오명이 따라붙었다. 실제 2014년 12·13구역, 2017년 3월 8·9·11구역, 지난해 5월 15구역이 지정 해제됐다. 15개 구역 중 9곳만 사업을 진행하는 상태로, 이 중 4곳은 이미 입주했거나 입주 예정이다.

장위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동북권 경전철 개발 호재로 집주인들이 매물을 잘 내놓지 않는다"며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수자들도 관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신철 기자 camus16@

삼성물산, 베트남에 7번째 '삼성마을' 짓는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14일 베트남 타이 응우엔성 푸쿠옹 마을에서 삼성마을 7호 사업의 착공식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삼성마을은 삼성물산과 한국해비타트가 함께 진행하는 글로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다. 2015년 2월 인도네시아 파시르할랑 지역에 1호 마을을 건설했다. 이번 사업까지 포함하면 3개 국가 7개 마을에서 삼성마

을을 조성했다. 삼성마을 사업 비용은 전액 삼성물산 임직원의 기부금으로 조성된다.

삼성물산은 이번 7호 사업으로 베트남 타이응우엔성 푸쿠옹 마을과 나마오 마을에 18가구 집짓기, 35가구 집고치기와 화장실 37개 설치를 포함한 위생시설 신축, 위생교육과 재난대응 교육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서지희 기자 jhsseo@

모두를 위한 SK증권 로보어드바이저

SHAKE

SHAKE는 고도화된 알고리즘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객 맞춤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로보어드바이저입니다. {by 쿼터백}

※ SK증권은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께서는 충분히 그러한 설명을 듣고, 투자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은 예금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은 원금손실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스마트프랜차이즈 (주식) 0.15% + 1천원 ~ 0.05% + 1백만원 (거액금액별 차등, 세부 수수료들은 당사 홈페이지 참조)
 ※ 로보어드바이저가 고객에게 맞는 투자 또는 수익달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1차 테스트베드 통과
 ※ 테스트베드 통과가 해당 알고리즘의 품질이나 수익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고객센터 1588-8245

국세청, 인기 BJ 박가린 세무조사

아프리카TV 등서 역대 소득 유튜버 등 신종 크리에이터 해외수입 변칙 탈세 정조준



15일 동종업계와 사정기관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요원들을 동원, 유튜브 등에서 역대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박 씨를 상대로 수주간의 일정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국세청이 인터넷방송 아프리카TV에서 BJ로 활동하고 있는 박가린(사진·33)를 상대로 최근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 세금을 추징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 씨는 1인 크리에이터로, 아프리카TV에서 '미녀 BJ'로 유명세를 타 현재 약 27만 명의 SNS 팔로어를 보유하고 있다.

이후 국세청은 박 씨에 대해 소득세 등 수천만 원을 추징기로 결정, 통보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국세청은 박 씨 이외에도 신종·호

황업종을 영위하며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 서도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고소득 자영업자와 소득탈루 혐의가 큰 연예인, 프로운동선수 등 총 176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실제로 국세청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176명 중 유튜버와 BJ 등 IT관련 업종은 15명, 부동산·금융컨설팅 등 신종 호황 분야 47명, 연예인 등 문화·스포츠 분야 20명, 병·의원과 변호사 등 호황 전문직 39명, 부동산 임대업자 35명, 기타 20명 등이다. 특히, 이 가운데 조사 대상자에 선정된 유튜버들의 경우 광고수입 등 고수익이 발

생했음에도 해외수입 신고 누락, 가공경비 계상 등으로 소득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의 연간 수입은 수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례로 아프리카TV가 집계한 2월 별풍선 수입 순위에서 박 씨는 한 달 동안 8135만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와 관련해 말을 아끼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 관련 정보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김면수 기자 tearand76@



새로운 광화문광장 투시도. 사진제공 서울시

새 광화문광장 조성 위해 세종문화회관 쪽 도로 없애 사직로 우회도로 만들기로

서울시가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사업을 위해 우회도로 개설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15일 '세종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도시계획 변경은 현재 경복궁 앞을 지나고 있는 기존 사직로의 우회도로 개설이 주 내용이다. 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 열람공고는 16~31일 진행되며 의견이 있는 시민은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관련 기관과 광화문광장을 대한민국의 역사적·상징적 중심 공간으로 조성하는 데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며 "광장 조성사업으로 편입되는 정부서울청사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해서는 청사로서의 기능 유지에 충분한 대체 토지 및 시설 등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광화문광장 설계안에 따르면 세종문화회관 쪽 차도가 광장으로 편입되면 서 광장 면적이 약 3.7배 늘어난다. 광화문에서 시청까지는 지하로 연결된다. 앞서 서울시는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을 두고 행정안전부와 공개적인 충돌을 빚었다. 서울시가 1월 새로운 광화문 광장 설계를 발표하자 행안부는 "새 광화문광장 설계안에 포함된 정부서울청사 일부 건물 및 부지 포함 문제는 행안부와 합의된 바가 없다"며 "새 설계안대로 하면 정부청사 기능을 유지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김진희 기자 jh6945@

서울기록원 개원

공공기록물 130만점 영구 보존

서울시정 등 공공기록물 130만여 점을 수집해 영구 보존하고 관리하는 오프라인 저장소 '서울기록원'이 2개월간 시범 운영을 마치고 15일 정식 개원했다. 2016년 4월 첫삽을 뜬 지 3년 만이다. 서울시는 이날 은평구 서울혁신파크 내 서울기록원 앞 광장에서 개원행사를 열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15일 서울 은평구 통일로 서울기록원을 찾은 시민들이 기록물 서고를 둘러보고 있다. 서울시 중요 기록물 130만여 점을 영구적으로 관리·보존할 서울기록원은 약 2개월간의 시범 운영을 마치고 이날 정식으로 문을 열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법률에 근거한 최상위 기록물관리기관인 서울기록원은 지하 2층~지상 5층, 연면적 1만5004㎡ 규모로 △전문 보존공간(지하 1~2층) △시민참여 공간(지상 1~3층) △기록물 작업공간(지상 4층)으로 구성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에게 완전하고 정확한 기록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록물을 제대로 관리하는 일이 필수적"이라며 "서울시는 서울기록원을 세계적 수준의 아카이브로 성장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기록원은 토지이동측량원도, 면적측정부 등 서울시가 보유한 100여 년 동안의 기록물과 향후 30년간 생산될 예측분을 포함해 총 130만 여 점을 영구 보관할 수 있다. 김진희 기자 jh6945@

대법 "서울대 법인화 반대 교수 면직 부당"

2011년 법인화한 서울대학교 교원 임용을 거부한 교수를 직권면직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직 서울대 부교수 김모 씨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대는 2011년 11월 소속 교원들에게

교육부 소속 공무원에서 퇴직한 후 전환한 법인으로 임용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더불어 법인 교원으로 임용되기를 희망하지 않으면 5년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고 알렸다. 김 씨는 법인 임용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교육부 소속 공무원 신분으로 서울대 파견 근무를 했다. 그러나 김 씨는 교육부가 5년이 지난 2016년 12월 직권면직

하자 근거도 없는 위법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2011년 직권면직 대야 했지만,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5년간 보호해 준 것"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서울대의 법인 전환이 국가 공무원법상 직권면직 처분 사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교원에 대한 신분보장 의무가 있는 교육부가 전직 발령이나 전환 배치 등 면직 회피 가능성이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장효진 기자 js62@

재미 공감 행복

BRAVO My Life

**정기구독하세요!
삶이 달라집니다!**

정기구독 안내 | 1년 정기구독료 10만 원(우편발송료 무료). 날권은 1만 원
정기구독 신청 및 구독 문의 | TEL (02) 799-2680 FAX (02) 799-6700
이메일 bokyeong@etoday.co.kr 홈페이지 구독신청 bravo.etoday.co.kr

브라보 챔잼 TV
시니어만을 위한 소통공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준비한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유튜브 채널 **브라보 챔잼 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유튜브 검색창에 브라보 챔잼 TV)

구독 문의 (02) 799-2680

산재 없도록... 서부발전, '안전일터 만들기' 팔 걷었다

위험설비 2인 1조 점검 의무화
안전 인프라 확충 200억 투입

전 작업 위험평가 등 체계 정비
사내 안전 전문가 육성도 추진



김병숙(가운데) 한국서부발전 사장이 석탄 이송 설비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 한국서부발전

한국서부발전이 사업장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데 팔을 걷어붙였다. 과거의 잘못을 거울삼아 임직원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 만들기에 나선 것이다.

최근 서부발전은 대대적인 사업장 안전 관리 강화에 나섰다. 지난해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직원으로 일하던 김용균 씨는 지난해 12월 컨베이어 벨트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사고 직후 서부발전은 위험설비 점검에는 2인 1조 작업을 의무화하고 경력이 6개월이 안 된 직원은 현장에서 홀로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긴급 안전대책을 내놨다. 또 본사 안전 관리 부서를 사장 직속으로 확대 개편하고 사고가 일어난

태안화력발전소에는 부서별 전담 안전 관리 조직을 신설하는 등 조직을 바꿨다.

변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안전은 특정 부서만의 업무가 아니라 구성원 모두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가치'라는 경영 방침을 기초로 네 가지 쉐인 방향을 내놓았다. 안전을 모든 업무 과정에서 최우선 순위에 놓을 수 있도록 회사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고쳐나가기 위한 것이다.

서부발전은 우선 사업장 내 안전 설비 확충에 200억여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위험설비 근처에 경적과 경광등을 크게 늘릴 계획이다. 작업자가 작업 중 위험 상황을 쉽고 빠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안전 사각(死角) 지대를 없애기 위해 폐쇄 회로(CCTV)와 열화상카메라도 늘린다. 노동자가 떨어지는 석탄에 맞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특수 아이들러(컨베

이어 벨트를 받치고 있는 롤러)와 낙탄회수장치도 설치한다. 서부발전은 시야 확보가 안 돼 일어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먼지흡입장치와 물 분무 설비도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서부발전은 노동자가 위험한 설비에 접근하지 않고도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컨베이어 클리닝 시스템 등 자동화 설비를 확충하는 데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서부발전은 안전관리 체계도 정비했다. 종전에는 위험작업허가서를 발행받아야 하는 작업에만 위험성 평가를 했지만 이제는 모든 작업에 위험성 평가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주기적으로 모든 작업의 위험성을 평가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안전신고센터'를 개발해 스마트폰을 활용해 임직원이 어디서나 안전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간편하게 위험 상황별 행동수칙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재난대응 행동요령 모바일 홈페이지'도 구축했다.

서부발전은 사내 안전 전문가 육성에도 힘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를 개방형 직위로 영입한

다. 이들의 교육을 통해 서부발전 내에서도 안전 전문가를 키운다는 게 서부발전의 구상이다. 서부발전 측은 이러한 방식을 통해 안전 인력 풀(pool)이 늘어나면 전 사업소 직원과 협력사 직원의 안전 교육도 내실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서부발전은 본사뿐 아니라 협력사 역시 비용 부담을 늘리지 않고도 안전 관리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계약금 4000만 원 이상 대규모 공사에 한정됐던 안전관리비 지급 규정을 고쳐 공사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업체가 안전관리비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고소(高所) 작업 등 위험도가 높은 공사에는 정부가 고시한 지급 요율 이상으로 안전관리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협력사가 비용 부담으로 안전난간이나 추락 방지망 등 안전시설 설치를 망설이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서부발전 측은 "안전의식 정착, 안전시스템 및 제도 혁신, 지속적인 설비개선과 보강, 그리고 협력기업과의 안전시스템 또는 제도 강화에 중점을 두고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박종화 기자 pbell@

수자원공-도로공, 中企 혁신성장 '쌍끌이'

신기술 교류협력 협약 체결
수요 발굴·판로 개척 지원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도로공사가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에 힘을 모은다.

수자원공사는 도로공사와 16일 경북 김천시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신기술 교류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 신기술 관련 정보 공유 △양 기관 사업장을 중소기업 제품 성능시험장(테스트베드)으로 상호공유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기술 수요

발굴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이다.

양 기관은 빗물이 잘 스며들지 않는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를 대체해 빗물 투과율이 높은 친환경적인 기술을 도입하는 사례 등을 공동으로 발굴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댐과 정수장, 도로 등 양 기관의 다양한 시설을 중소기업 제품 성능시험장으로 공유하여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성능 인증제도와 연계해 판로 확대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수자원공사는 "중소기업은 이를 통해 제품의 성능을 검증할 수 있으며, 성능 시험과 행정 절차에 드는 시간 및 비용 등을 줄

일 수 있다"고 밝혔다.

수자원공사는 현재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성과공유제 등 다양한 기술개발 지원제도와 전담조직인 '물산업플랫폼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까지 약 112건의 성능인증제품 개발을 지원하며 중소기업 육성을 지원하고 있다.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협력으로 국내 물산업 중소기업의 혁신성과 친환경기술 분야의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며 "물관리 전문기관으로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관리 혁신을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박은평 기자 pepe@

"취약계층, 냉·난방비 지원해 드려요"

에너지공, 22일부터 신청 접수

한국에너지공단이 이달 22일부터 9월 말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받는다.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까지는 겨울철 난방 비용만 지원됐지만, 올해부터는 여름철 냉방 비용으로 지원 범위가 확대됐다.

신청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가운데 노인이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

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가 있는 가구다.

지원액은 1인 가구는 여름 바우처 5000원, 겨울 바우처 8만6000원이고, 2인 가구는 여름 바우처 8000원, 겨울 바우처 12만 원이다. 3인 이상 가구는 여름 바우처 1만1500원, 겨울 바우처 14만5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여름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겨울 바우처는 10월 16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이월해 쓸 수 있다. 세종=박종화 기자 pbell@



진드리를 쫓아!
진드리를 쫓아!
얼마나 놀았을까!

놀이를 다시 보자!

놀면서 스스로 생각하고
꿈을 찾아 이루게 하는 것으로

상대방을 마음으로 이해하고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것으로

놀이의 가치를
다시 볼 때입니다

www.childfund.or.kr

“말길 곳 없어 자녀 ‘학원 뽕뽕이’ 워킹맘 사연에 눈물”

W 기획 인터뷰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짜각악어’ 김희정 대표

‘성범죄 이력 조회 후 출근’ 매일 아침 직원 출결 관리에 이 같은 문구가 뜨는 회사가 있다. 주 2~3회는 무조건 아침에 경찰서를 둘러 성범죄 이력을 조회한 후 출근해야 한다는 게 이곳의 규칙이다. 이는 대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덕목이기도 하다. 직원들도 꺾이지 않는 대표의 소신에 두손 두발 다 들었다.

이쯤 되니 경호업체인가, 경찰서와 협업하는 프로젝트가 있는 기업인가 궁금해진다. 1년간 1000명이 넘는 이들의 성범죄 이력을 조회 해오다 보니 경찰에게 미안해 지기까지 하다고. “경찰이 일일이 쳐야 하는 게 너무 죄송해서 USB에 한꺼번에 담아서 드립니다.” 3일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사무실에서 만난 짜각악어 김희정 대표의 항변(?)이다.

“성범죄 이력 조회요? 하다가 안 하는 게 더 위험한 것 같아요. 계속해야죠. 인턴



김희정 짜각악어 대표가 3일 서울 성동구 헤이그라운드 사무실에서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 대표는 “까다롭게 선별한 아이 돌보미에게 제대로 된 처우를 해주는 일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모님’ 쓰고 어머니 도움 10년간 직장생활 버티다 답답함에 ‘짜각악어’ 창업

직원이 어느 날 제게 ‘타협하지 않는 모습이 인상적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짜각악어는 시간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모바일 앱에 원하는 지역, 시간을 입력하고, 교사 프로필을 확인한 후 원하는 선생님을 선택하며 매칭이 이뤄진다. 부모는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기를 바란다. 짜각악어가 까다로운 교사 선발 과정을 거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짜각악어의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가입을 하고, 인적성 검사를 봐야 한다. 이후 지정된 교육 장소에 경력증명서, 성범죄 이력조회 결과 등 신원확인을 할 수 있는 서류들을 지참해 참석해야 한다. 김 대표는 “여기까지 참석하는 사람이 전체의 10%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를 통과한 지원자도 면접을 보고, 돌봄 역량과 놀이 콘텐츠 교육 등 학습과정을 거친 후에야 짜각악어에서 활동할 수 있다.

김 대표는 휴대전화를 열고, 지난달 4월

21일부터 27일까지 일주일 동안 현황을 보여줬다. 총 282명(대학생 206명, 보육교사 76명)이 회원가입을 했지만, 교육 참석자는 20명(대학생 12명, 보육교사 8명)에 불과했다. 이 중 2명의 불합격자가 나와 282명의 지원자 중 18명이 합격한 셈이다. 까다로운 선발 과정 때문일까. 교사들 사이에서 짜각악어는 인기가 없다는 게 김 대표의 설명이다. 대신 자신 있는 이들은 오히려 짜각악어를 선호한다.

“부모는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에게 아이를 맡겨야 해요. 부모가 지원한 교사의 프로필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저희가 먼저 까다로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낯설게 할 때 지정된 교육 장소로 오게 하면, 안 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결국, 안 할 사람은 안 와요. 약속을 어긴 거죠. 그런 분은 탈락입니다. 다시 신청할 수 없어요.”

아이 돌봄 서비스는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365일 진행된다. ‘오늘 돌봄’, ‘밤중 신청’, ‘주말 신청’을 통해 아이를 맡길 수 있다. 상담도 같은 시간 365일 가능하다. 실제 아이를 키워본 엄마 상담사 세 명이 평일과 주말에 엄마와 교사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교사 모두 앱에 소개하고 있진 않아요. 하루에 돌봄이 한 개인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100~150건 정도 되죠. 총 1만1000명의 약어알과 2000명의 약어가 있습니다. 약어는 교육을 받은 분이고, 약어알을 교육을 받지 못한 분이예요. 약어알과 약어 수는 참 많은 것을 의미해요. 어떤 아이 돌봄 서비스는 80명을 한꺼번에 교육하고, 신분증 검사도 하지 않는다고 해요. 시급은 낮게 주는 대신, 허들이 낮은 거죠. ‘우리만 이렇게 힘든 것 아닌가’라는 내부 이야기가 나올 때쯤 금천구 사건이 터졌죠.”

◇명함에 새겨진 ‘강지민 엄마…’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엄마 이야기” = 김 대표는 마케터 출신이다. 리바이스, 존슨앤드존슨, 매일유업 등에서 10년간 마케터 생활을 했다. “저는 그래도 나는 편이었죠.” 김 대표는 아이가 2학년이 될 때까지 ‘이모님’도 쓰고, 양가 어머니의 도움을 받았다.

“제가 일했던 곳의 팀원은 대부분 여성이었는데,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사연이 정말 많아요. ‘학원 뽕뽕이’를 그냥 돌리는 게 아니예요. 아이를 학원에 맡기지 않으면 엄마가 퇴근할 때까지 아이가 있을 곳이 없으니까요. 이런 일도 있어요. 한 직원의 아이가 셔틀서비스를 놓쳤대요. 집은 분

모바일 앱서 교사 선택·매칭 4단계 까다로운 교사 선발 부모 입장 대변해 타협 않죠

당이고 학원은 서울인데, ‘엄마 셔틀이 안 와’라고 전화가 온 거죠. 그럼 모든 일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일단 아이에게 경찰차를 보낸대요. 방법이 없으니까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엄마는 무너져요. 엄마는 큰 데서 무너지지 않아요. 어린이집이나 이모님은 어떻게든 찾아내죠. 하지만 작은 것들 때문에 금이 생기면, 엄마는 자신의 기심 때문에 가족이 힘든 것 아닌가 자책을 해요.”

2016년 9월 같은 처지의 세 엄마가 뽕뽕 뭉쳤다. ‘우버’나 ‘에어비앤비’ 처럼 플랫폼을 통해 아이 돌봄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명함에는 ‘강지민 엄마’라는 문구도 넣었다. 직원들 모두 한 아이를 엄마, 아빠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아이 돌봄 매칭을 한다.

“저는 돈을 벌기 위해 짜각악어를 시작한 게 아니예요.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직장인 엄마로서 견디다 못해 문제 해결을

모색한 거죠. ‘답답함’이 짜각악어를 있게 한 거 같아요. 전문성 있는 선생님들을 플랫폼에서 충분히 검증한 후 대우하면 이 시장이 좋아질 거로 생각해요.”

◇‘경단녀’ 되는 전문 보육인들… ‘자문’과 ‘기업 CSR’에 적극적인 이유 = 짜각악어는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삼성카드와는 2년째 CSR을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위한 아이 돌봄 사업을 했지만, 올해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졌음에도 집에서 쉬고 있는 교사들이 다시 일터로 나올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한다.

아직 계약은 하지 않았으나 국내 굴지의 보험회사와는 어린이 재활병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김 대표는 “한 가정에 아픈 식구가 한 명 있으면 그 가족의 삶의



자녀 이름이 함께 적힌 짜각악어 명함. 사진제공 짜각악어

질이 굉장히 떨어진다”며 “특히 어린이 재활병원에서는 엄마들의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이들을 위한 혜택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짜각악어 교사가 병원에 투입되면 하루 평균 6시간 동안 병원에 있는 아이의 부모들도 숨을 돌릴 수 있다. “엄마들이 장 보러도 못 간대요. 엄마가 3~4시간 만이라도 쉬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진행하는 거예요. 아이가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는 것, 다음 장소로 이동하는 걸 짜각악어 선생님들이 돕는 거죠.”

현재까지 14억 원의 투자금을 모집했다. KB증권, 엘로우독 등이 짜각악어에 자금을 투입했다. 광화문에 위치한 한 기업에 마련될 보육시설에도 짜각악어 선생님이 투입될 예정이다.

“엄마는 아이를 맡길 사람이 없다고 받을 동동 구르고, 정부는 일반 여성을 교육해서 놓고 있어요. 이미 국가가 공인한 보육교사가 얼마나 많은데, 이들을 고용하지 않을까요? 육아는 엄마만의 문제가 아니예요. 한 회사의 절반 이상이 육아하는 가정입니다. 정부, 기업 모두 육아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해요. 행복한 가정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김소희 기자 ksh@

“악어선생님 감사합니다”

스승의 날 맞아 40여 명 돌보미 교사 초청 행사 마련 돌봄 사례 소개·학부모 영상편지 등 감사 마음 전해



11일 서울 성동구 헬로우뮤지움에서 진행된 ‘악어데이’의 모습. 짜각악어는 스승의 날을 맞아 40여 명의 악어선생님을 초청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사진제공 짜각악어

11일 서울 성동구 성수일로 헬로우뮤지움. 40여 명의 ‘악어선생님’이 모였다. 이날 짜각악어는 ‘고마워라, 악어의 은혜’라는 이름의 스승의 날 행사를 진행했다. 애플리케이션으로 활동하고 있는 악어선생님들을 오프라인으로 불러내, 소통하기 위함이다. 김희정 대표는 “악어선생님들께 감사와 존경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이날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오후 3시부터 시작됐다. 시작 전부터 초청받은 악어선생님들이 행사장에 도착했다. 짜각악어 육아연구소 인사로미 소장의 진행으로 악어데이가 시작됐다. 1부는 ‘좋은 돌봄 사례 공유, 선배악어가 후배악어에게 전하는 편지, 돌봄상식 퀴즈’, 2부는 ‘쿨웬디와 짹짹 라디오, 대표님의 격려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악어선생님들은 감동적인 돌봄 사례들

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이들 사랑하고 귀여워하고 돌봄을 하는 데서 보람을 느꼈다”는 게 악어선생님들의 소감이다.

짧팍 영상편지도 상영됐다. 짜각악어는 사전에 돌봄 아이들과 그들의 부모로부터 악어선생님을 위한 영상편지를 받

았다. 스크린에 등장한 아이들의 모습을 본 악어선생님들은 반가워하다가 이내 눈물을 지었다.

최명선 보육 악어선생님은 “꼭 한 번 더 보고 싶은 아이였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영상에) 나와서 감동했다”고 했다.

전소운 대학생 악어선생님은 “학기 중이라 짜각악어 일을 쉬고 있는데 (영상 나와서) 울 뻔했다. 좋은 만남과 영상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이날 악어선생님들은 각자의 돌봄 꿀팁도 공유했다. 흥분된 아이를 조용히 시키며 몰입시키는 방법, 돌봄 진행에 필요한 다이어리 정리법, 선생님과 언니의 경계에서 선생님의 권위를 지키는 방법, 첫 돌봄이 낯선 아이에게 모양 놀이로 다가가는 방법, 아이의 낮잠을 잘 재우는 방법 등 실용적인 이야기들이 오갔다.

김희정 대표는 스승의 날 카네이션을 직접 전달했다. 김 대표는 “선생님들이 짜각악어에 소속감을 느끼고,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느꼈으면 한다. 자부심을 품으시길 바란다”고 했다.

김소희 기자 ksh@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은행을 다! 담다

누구나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NH농협은행의 5개 모바일뱅킹 어플을
하나로 통합한 NH스마트뱅킹.
시대를 앞서나가는(one up) 스마트한 모바일금융을
지금 바로 경험해 보세요.

한 번에 스마트하게! NH 스마트뱅킹 one up



한 번에 스마트 하게 NH 스마트뱅킹 one up



개인별 맞춤 서비스

고객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개인별 맞춤화면을 제공하고
금융상품을 추천합니다.



키보드뱅킹

문자나 SNS 실행 중에도
모바일 키보드를 이용한
계좌 송금이 가능합니다.



시챗봇 (상담톡)

음성 및 텍스트를 활용한
뱅킹서비스 외에도 다양한
금융상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OTP

기존 실물 OTP를 대체한
1인 1폰에서만 발급되는 모바일 시스템으로
보안성과 편리성을 강화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해당상품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가까운 NH농협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2018-2732 (2018.12.05.~2019.11.30.) ※NH농협은행 스마트금융부 개발상품



2018년 농가소득 4,207만원 달성! 농가소득 5천만원 시대를 위해 농협이 함께 하겠습니다

김도진 IBK기업은행장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 동참

“4차 산업혁명, 지구환경 보존이 시작”

신입행원·직무연수 등 행사 때 일회용품 대신 텀블러·머그컵 권장 “미래세대 위한 작은 실천 첫 걸음 지금 행동하면 변화 멀지 않을 것”

김도진 IBK기업은행장이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에 동참했다.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는 일회용 컵 등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인다는 목적으로,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사진을 찍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재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의 릴레이 환경 캠페인이다.

김도진 은행장은 직원들과 함께 텀블러를 들고 있는 사진을 기업은행 공식 페이스북에 올렸다. 김 행장은 “지난날 산업혁명은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해 준 반면 환경을 오염시키고, 자연 생태계를 훼손했다”라며 “4차 산업혁명의 지향점은 지구 환경을 복원하고 보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하고, 저부터 그리고 우리 IBK부터 일회용품 줄이기에 나섰다”고 밝혔다.

또 김 행장은 “직원들과 만나는 자리마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것을 당부하며



김도진(가운데) IBK기업은행장이 직원들과 텀블러, 머그컵을 들고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 동참을 위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텀블러를 선물해왔다”며 “생활 속의 작은 실천 하나가 미래 세대에게 건강한 지구 환경을 물려줄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했다.

기업은행은 몇 해 전부터 신입행원 연수, 직무 연수 등 직원들의 단체연수 참여 시 일회용품 대신 텀블러, 머그컵 등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김 행장은 “당장은 좀 불편할지 몰라도 지금부터 행동한다면 변화도 그리 멀지 않을 것”이라며 김영기 금융보안원장에게 감

사를 표현했다. 김도진 행장은 김영기 원장의 추천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다.

김 행장은 다음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 참여자로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이방희 삼익가구 회장, 강해근 코베아 회장을 추천했다. 지목된 이방희 회장은 기업은행 공식 페이스북에 직접 댓글을 달아 “행사에 동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 저와 삼익가구 모든 식구가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객진산 기자 jinsan@

대한항공, 올해로 16년째 몽골 사막 푸른 숲 가꾸기 단풍나무 5000그루 심어



대한항공이 올해도 몽골 사막화 지역에 푸른 숲 가꾸기를 이어간다.

5월 13일부터 16일까지 몽골 울란바토르 바가노르구 사막화 지역에서 대한항공 임직원 120여 명과 델타항공 직원 30여 명 및 현지 주민, 학생 등 총 200여 명이 참여해 나무 심기 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한항공은 사막화 진행을 막고 지구를 푸르게 가꾸는 ‘글로벌 플랜팅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04년 이곳에 ‘대한항공 숲’

을 조성하고 올해로 16년째 나무 심기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번 봉사 활동은 대한항공과 델타항공 조인트벤처 1주년 기념으로 델타항공 직원들이 함께 참여했다.

‘대한항공 숲’은 현재 총 44헥타르(44만㎡) 규모이며 올해는 단풍나무 5000그루를 심어 총 12만5000여 그루의 나무들이 자라는 대규모 숲으로 가꿔지고 있다.

대한항공은 현지인 식립 전문가를 고용

해 나무 생장관리를 돕는 한편, 주민 대상 식립 교육을 통해 환경 의식을 제고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식립 활동에 동참하고 있는 현지 볼로브스를 및 근갈루타이 국립 학교에 학습용 컴퓨터를 기증하는 등 한·몽 양국 간 우호 협력 증진을 위한 나눔 활동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올해에도 컴퓨터, 책걸상 및 체육용품 등을 기증할 계획이다. 하유미 기자 jscs508@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전보 △입지총괄과장 조웅환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정책기획팀장 최영수

◆국세청 ◇서기관 승진 <국세청> △국세통계담당관실 권석현 △전산운영담당관실 이승신 △감찰담당관실 이철경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백종찬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최재현 △상호합의담당관실 권동

철 △법령해석과 오대규 △법령해석과 이순용 △부가가치세과 김필식 △법인세과 조풍연 △상속증여세과 김광민 △조사기획과 송원영 △조사1과 이동희 △조사1과 최영철 △학자금상환과 이경순 △대변인실 신규성 △운영지원과 김상범 △서울지방국세청 △개인납세2과 이유강 △승무2과 고성호 △조사1국 조사1과 황인준 △조사2국 조사관리과 이광호 △조사3국 조사2과 최이환 △조사4국 조사2과 주현철 <중

부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 조갑신 △조사2국 조사관리과 이미진 △조사3국 조사관리과 조수진 <인천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 천용욱 <대전지방국세청> △감사관 최용섭 <광주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최현호 <대구지방국세청> △감사관 김진업 <부산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장 임경택 △전산관리팀장 이재영 ◆한양증권 ◇임원 신규선임 △AI운용본부장 윤재호

부음

▲박동월 씨 별세, 박상호·상영·상철(경기대 특임 부총장)·은하 씨 부친상 = 15일, 전남 순천의료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7일 오전 9시 30분, 061-759-9181

▲이연재 씨 별세, 소재악·형석(중앙보훈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은석(라임자산운용 기업투자본부장) 씨 부친상 = 15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5호실, 발인 17일 오전 8시, 02-3410-6915

▲정의현(전 수원성경연 대표이사) 씨 별세, 유기순 씨 남편상, 정용기(성균관대의대 교수·삼성창원병원 이비인후과 과장)·용준(브레드프로덕션 대표)·누리 씨 부친상, 장현정(성균관대의대 교수·삼성

창원병원 재활의학과 의사) 씨 시부상 = 15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20호실, 발인 17일 오전 9시 30분, 02-3410-6920

▲신임조 씨 별세, 신상호(국제대 부총장)·중호(진주교대 교수)·광호(대구교육청 장학관)·빛나라(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씨 부친상, 오민영(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조윤석(국세청 사무관) 씨 처조부상 = 14일, 대구의료원 국화원 장례식장 3층 VIP실(301호실), 발인 17일 오전 8시, 053-560-9580

▲배혜원 씨 별세, 한정호(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수영·수미 씨 모친상, 한세현(SBS 기자)·중현(엠티뱅크 대리) 씨 조모상 = 14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17일 오전 6시,

02-2227-7580

▲김두년 씨 별세, 김명숙·명순·원일·대일(AIA생명 대면채널본부장·부사장) 씨 부친상, 민태철·김용규 씨 장인상 = 14일, 충남대병원 장례식장 VIP실, 발인 16일 오전 9시30분, 042-280-6461

▲임종진 씨 별세, 임용수(경기도약사회 부회장) 씨 부친상 = 14일, 안산 한도병원 장례식장 백합실, 발인 16일 오전 9시, 031-485-4422

▲채한기 씨 별세, 채중윤(OBS경인TV 보도영상팀 차장)·중현(삼성반도체 중국주재 팀장) 씨 부친상, 전정희(신한은행 시화금융센터 부지점장) 씨 시부상 = 14일,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장례식장, 발인 16일 오전 9시, 031-501-4646

담배회사 필립모리스가 내과전문의 영입한 까닭

과학 총괄 임원에 김대영 박사 “전자담배 과학 커뮤니케이션 강화”



서 최고 의학 부 책임자로 근무한 바 있다. 김 상무는 백혈병·혈액종양내과 전문의로 다수의 관련 논문 저명 학술지에

한국필립모리스는 과학 총괄 임원(상무)으로 혈액종양내과 전문의 김대영(사진) 박사를 영입했다고 15일 밝혔다. 한국필립모리스는 김 박사의 영입을 계기로 관련된 전자담배기기 아이콘스와 전용담배 히츠의 ‘과학 커뮤니케이션’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김대영 과학 총괄 상무는 서울대의대를 거쳐 동 대학원에서 내과학 석사를, 울산대 대학원에서 내과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어 서울아산병원 혈액내과 부교수, 울산대 의과대학 의학 과 부교수로 재직하다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 위치한 셰이크 칼리파 전문병원(서울대병원 운영)에

신는 등 최근까지도 연구 활동을 활발히 펼친 바 있다.

김 상무는 “국제수준의 공신력을 갖춘 필립모리스의 과학 연구는 관련된 전자담배 등 혁신 제품과 관련한 기초 연구부터 임상·비임상 연구까지 광범위하게 진행 중”이라며 “연구 결과를 과학·의학계 전문가들에게 정확하고 투명하게 전달해 ‘담배연기 없는 미래’를 만드는 데 함께하고 싶었다”고 합류 계기를 밝혔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손경식 경총 회장, EU 21개 회원국 대사단 만나

“노사관계 개선없이 ILO 협약 비준, 기업 부담 커져”

손경식<사진 오른쪽>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회장이 “한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 문제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15일 주한 유럽연합(EU) 대표부 및 21개 회원국 대사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어려운 경제상황, 노동규제 강화, 커지는 무역환경 불확실성으로 인해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한-EU FTA와 관련한 노동계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 이슈에 대해, 산별노조 체제인 유럽과 달리 한국은 기업별 노조 중심 체제라는 노사관계 특수성이 존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한국의 대립적·투쟁적 노사관계와 제도 및 관행의 개선 없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게 된다면 기업들의 노사관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김영주 무역협회장, 워싱턴서 로스 美상무장관 만나

“한국 자동차 무역확장법 232조 면제해달라” 요청

김영주<사진 오른쪽> 무역협회 회장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월버 로스<왼쪽> 미국 상무장관을 만나 미국의 수입 자동차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무역협회에 따르면 포스코, 세아제강, 현대차 등 16개 국내 기업으로 구성된 민간 경제사절단과 함께 미국을 방문 중인 김 회장은 로스 장관과 ‘자동차 232조’ 등 양국 무역의 상호관심사에 대해 1시간가량 논의했다.

김 회장은 이 자리에서 “자동차의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통

해 미국 측 입장을 최대한 수용했고, 미국 내 한국 기업이 양질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만큼 미국은 자동차 232조 관세조치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최중경 공인회계사회장 “투명 회계가 경제발전 핵심”

풀너 헤리티지재단 창립자 만나



최중경<사진 왼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지속적인 경제발전의 핵심은 투명한 회계에 달렸다고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15일 한공회에 따르면 헤리티지재단의 창립자인 에드윈 풀너<오른쪽> 회장은 전날 서울 충정로 한공회를 방문했다. 헤리티지재단은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로 꼽힌다. 최 회장은 헤리티지재단 초청을 받아 3년간 연구원으로 재직하며 풀너 회장과의 인연을 맺었다.

최 회장과 풀너 회장은 이번 만남에서 우리나라의 신뢰부감사법에 대해 중점적

으로 대화를 나눴다. 최 회장은 한국의 회계 개혁을 하게 된 배경과 경과, 핵심내용 등을 소개했다. 특히 “회계 개혁에 대해 여당과 야당 모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면서 “이에 지난해 11월부터 신뢰감법을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정필 기자 roman@

자본시장 속으로



김호준
대신지배구조연구소장

외부 감사인의 역할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하다. 주주 등 회사의 이해관계자들이 기업 실적과 재무 상태를 판단할 때 회계법인의 의견은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또한 매일 숫자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자본시장이 작동하기 위한 기본조건인 신뢰의 근간이기도 하다.

‘아더 앤더슨(Arthur Andersen)’은 필자의 첫 직장이었다. 회사의 지명도와 전문성, 영향력으로 인해 로고만으로도 자부심을 느끼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설렘도 잠시, 2002년 아더 앤더슨은 돌연 해체됐다. 미국 굴지의 에너지 운송업체 엔론(Enron)이 저지른 15억 달러(약 1조 7000억 원) 규모의 분식회계 사건 때문이었다.

한 회사의 감사 책임으로 90년 역사를 지닌 회사가 일순간에 공중분해됐다. 엔론의 CEO 제프 스킨링은 증권사기죄로 24년형을, CFO 앤드루 파스트는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재발 방지를 위해 미국 정부는 사베인스-옥슬리 법(Sarbanes-Oxley Act of 2002, SOX)을 제정해 기업의 내부회계관리를 엄격하게 통제했다. 당시 기억은 풋내기 신입사원이었던 필자에게 기업의 지배구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분식회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생생하게 알려준 경험이었다.

분식회계와 외부감사인의 책임

이후 SK글로벌, 두산 등 한국의 각종 분식회계 사례를 접할 때마다 분식 규모와 페널티를 따져보는 습관이 생겼다. 엔론의 상황과 비교하면 결과는 늘 비슷했다. 분명 처벌은 관대하고 대책은 미흡했다. 예컨대 대기업집단의 경우 총수가 실형을 받은 후 집행유예로 면죄부를 받는 방식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한국의 회계투명성 순위가 2018년 IMD(국제경영개발원) 기준 세계 63개국 중 62위로 수년째 최하위권인 사실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인간의 본성상 ‘당근과 채찍의 총합’에 따라 행동 여부를 결정한다고 보면, 처벌이 가벼울 경우 적발 시 손해는 적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얻게 되는 엄청난 이익에 이끌려 사건은 재발할 수밖에 없다. 문제가 생겨도 관련자를 비난하거나 처벌하면 그만이다. 근본적인 재발방지책이 뒤따르는 경우도 드물었다.

하지만 최근 총수가 없는 기업인 대우조선해양 사태부터 상황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금감원 기준 약 8조 원 규모의 분

식회계가 밝혀졌다. 당시 재임한 두 CEO는 각각 대법원에서 징역 9년, 항소심에서 징역 5년형을, CFO는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담당 회계법인도 이례적으로 상황에 따라 회사가 문을 닫을 수 있는 수준인 ‘신규 감사업무 1년 금지’, 담당 회계사들도 각각 라이선스 등록 취소에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외부 감사인의 역할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하다. 주주 등 회사의 이해관계자들이 기업 실적과 재무 상태를 판단할 때 회계법인의 의견은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또한 매일 숫자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자본시장이 작동하기 위한 기본조건인 신뢰의 근간이기도 하다.

이런 면에서 최근 외부감사법이 개정되면서 변화가 이뤄지는 상황은 매우 고무적이다. 우선 2019년 상장사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정관 변경 안건 상당수가 ‘외부 감사인 선임’에 대한 것이었다. 외부 감사인 선임 시, 회계법인이 대표이사나 회사에 영업을 해서 선정되던 관행을

탈피해 감사위원회나 선임위원회를 통해 좀 더 객관적으로 선정한다는 내용이다. 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분식회계에 대한 손해배상과 형사처벌도 상한이 없는 수준까지 대폭 강화돼 책임이 막중하다.

2019년 2월 금융당국은 두 가지 과감한 조치를 더했다. 평소엔 회사가 자율적으로 외부 감사인을 선임하되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금융당국이 지정하는 회계법인으로부터 3년간 감사를 받는 ‘외부 감사의 주기적 지정제도’를 도입했다. 이 경우 회사와 회계법인의 유착 위험이 줄어 감사인의 독립성은 더욱 커지게 된다. 또한 ‘표준감사시간’을 도입해 각 회사별로 일정 시간 이상의 감사는 반드시 하도록 했다. 이제 보수가 적어 감사를 소홀히 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고 최소한의 감사 품질만은 담보할 수 있게 됐다.

다시 엔론 사태로 돌아가보자. 내부통제 장치와 기업의 책임이 남았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CEO 칼럼



김승찬
한국벤처경영원 대표

경영은 국어사전에 ‘기업이나 사업을 관리하고 운영함’으로 정의되어 있다. 영어의 ‘management’는 ‘사업체나 조직의 경영(운영)진’, 즉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경영의 키워드는 사람인 셈이다. 사람이 기업경영의 주체이고 기업의 흥망성쇠의 핵심이다. 회사(會社)는 모임 회, 모임 사이다. 영어의 company도 ‘함께한다’는 뜻이다. 회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비전과 목적을 위해 함께 활동하는 조직이다. 그리고 이를 운영하는 것이 경영이다. 사업은 변수가 상수이다. 스타트업은 특성상 인력의 변화가 많은 편이다. 고의든 실수든 문제를 일으켜 회사를 위협하게 만드는 것도 사람이고, 직면한 난제들을 해결하고 타개하는 사람도 사람이다. 따라서 경영자의 자질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보는 안목이다. 경영을 할수록 인복(人福)과 인재의 적재적소 배치가 중요함을 깨닫게 된다. 사람은 누구나 강점과 약점이 있다. 강

행복한 경영

점은 통합하고 약점은 보완될 때 시너지가 발생한다. 그런데 깊이 들여다보면 강점이 곧 약점이고 약점이 강점의 다른 면이다. 사람마다 특징(Character)이 있고 그 특징은 양면성을 갖고 있다. 어떤 면에서 경영자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이다. 개인의 특징을 잘 살려 적재적소에 배치해 아름다운 화음을 내야 한다.

아라비아의 사상이 이븐 할둔은 조직이 일치된 행동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아사비야(asabiya)라고 불렀다. 생물학자 피터 타친은 ‘제국의 탄생’에서 “가족, 국가, 기업 등 모든 집단의 흥망성쇠의 비밀은 아사비야에 있다”고 했다. 그는 강력한 제국이 건설되고 발전하는 토대가 조직구성원들의 신뢰와 상호협력력이라고 밝혔다.

필자는 직원, 파트너, 거래 업체, 고객과 함께 일한다. 모두 중요하지만 우선순위는 언제나 직원이다. 직원의 만족과 행복은 경영의 성과와 직결된다는 신념 때문이다. 좋은 성과는 비전, 전략, 시스템 그리고 조직원의 헌신의 결과임을 믿는다. 직원에 대한 기준은 ‘함께 성장하는 사람’이

다. 직원들의 교육 지원에 가능한 많은 투자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나도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벤처대학원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직원교육에서 과거의 자신이 가장 큰 책임을 강조한다. “자기 재창조는 선택사항이 아니다. 기존의 자신을 파괴하고 재창조하라”(톰 피터스, 미래를 경영하라)를 자주 인용한다. 나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다.

경영은 인간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것이다. 경영자는 물론 가족과 직원 등 관계자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 경영자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부담받은 사명자이다. 필자가 경영을 통해 추구하는 것은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삶’이다. 얼마 전 건강이상으로 전신마취 수술을 받고 난 후 더욱 분명해졌다. 명예와 재물은 목적이 아니다. 그것은 회사가 올바른 비전과 제대로 된 경영을 했다는 반대급부요, 보상일 뿐이다.

경영은 자신을 다스리는 것에서 출발한다. 경영자는 무엇보다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성정은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가르치고 있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는 동서고금의 진리이다.

얼마 전 타이거 우즈가 PGA 마스터스에서 14년 만에 우승했다. 우즈는 한때 실수로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을 잃었다. 재작년 그의 세계랭킹은 1199위였다. 골프는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하는 심리게임이다. 멘탈이 무너진 결과이다. 대회 우승 후 그는 자신의 두 아이를 한참 동안 포옹했다. 그의 승리는 많은 구설에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연습해온 감칠 같은 의지와 그를 지지했던 가족과 응원했던 팬들의 아사비야의 결과가 아니었을까 생각해본다.

인생도 골프처럼 직선적이지 않다. 도처에 해저드와 벙커가 도사리고 있다. 사업도 라운딩처럼 새로운 여정이기도 도전이다. 러프에서 허우적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목적지를 앞에 두고 돌아가야 한다. 중요한 것은 가족과 임직원 그리고 고객들과 그 여정을 함께한다는 것이다. 공존과 상생과 성장의 여정에 함께하는 모든 이에게 행복이 가득하기를!

이투데이, 말투데이

☆ 헨리 폰다 명언
“전력 질주하는 말은 다른 경주마를 걸 눈길하지 않는다.”

미국 영화배우. 주연으로 출연한 대표적 영화로 ‘젊은 시절의 링컨’, ‘분노의 포도’, ‘미스터 로버츠’가 있다. 다섯 번 결혼한 그는 ‘폰다 영화인 가문’을 만들었다. 그의 딸 제인 폰다와 아들 피터 폰다도 영화배우이다. 오늘은 그가 태어난 날. 1905~1982.

☆ 고사성어 / 오설상재(吾舌尙在)
비록 몸은 망가져도 혀만 살아 있으면 뜻을 펼 수 있다는 말. 원전은 사기(史記). 장의(張儀)가 초년(楚)나라 재상 소양(昭陽)의 식객으로 있었다. 소양이 왕에게 하사받은 ‘화씨지벽(和氏之璧)’이라는 진귀한 구슬을 연회 중에 잃게 되자 장의가 누명을 쓰고 매를 맞았다. 피투성이가 된 채로 집으로 업혀 들어온 걸 본 아내가 눈물을 흘리자 그가 한 말에서 유래했다. “내 혀를 보시오. 아직 있소?” [視吾舌尙在否] 훗날 장의는 혀 하나로 진(晉)나라의 재상이 되어 연횡책(連衡策)으로 소진(蘇秦)이 이룩한 합종책(合從策)을 깨는 데 성공했다.

☆ 시사상식/좀비기업(zombie companies)
회생 가능성이 크지 않은데도 정부나 채권단의 지원으로 간신히 파산을 면하는 기업. ‘되살아난 시체’를 뜻하는 ‘좀비’에 빗대 부른다. 좀비기업과 건전한 기업을 나누는 기준은 ‘빚(부채)을 갚을 수 있는지’가 핵심.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을 한계기업으로 간주한다.

☆ 속담 / 성미 급한 놈이 술값 먼저 낸다
성미가 급한 사람은 손해 보기 마련이다.

☆ 유머 / 알 건 다 아는 맹구
입급 살 맹구가 엄마에게 “아기는 어떻게 생기는 거야?”라고 묻자 갑작스런 질문에 당황해 “하느님이 주시는 거란다”라고 했다.

아빠가 집에 들어오자 맹구가 소리쳤다. “오! 하느님 오셨어요?”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삶연구소장

기사수첩



고종민 자본시장1부/kjm@

무역전쟁에 등 터지는 국내 투자자

있었다. 공포감으로 주가가 빠질 때 5G, 수소 등 미래 성장 모멘텀 있는 종목군을 저가에 담는 전략이다. 좋은 기업이 극대화된 공포로 인해 조정을 받으면 매수하고, 화해 분위기로 인한 반등이 이어지면 파는 전략이 유효할 전망이다.

1차 번국점은 6월 말 오사카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꼽힌

다. 트럼프와 시진핑이 잠정적으로 만나기로 한 상태. 양측은 사전에 실무자 접촉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주말 미·중 무역협상 결렬이 13일과 14일 증시 급락을 이끌었고 15일 증시는 안정을 찾고 있다. 이제는 실무진의 협상 소식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만 양측의 공방은 6월 말 완전히 마무

리디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매체는 단계적인 무역전쟁 협의를 점치고 있다. 핵심은 관세다. 미·중 무역협상에 영향을 받는 기업 주가는 관세 부과 해제 강도에 따라 우상향으로 롤러코스터를 탈 전망이다.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품목별로 10%와 25%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협상이 원활히 이뤄지면 상당수 전문가는 미국 측이 연내 25% 관세 부과를 해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도 미국산 제품의 관세 부과를 통해 강하게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양측이 서로 양보하는 구도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도 자존심을 훼손하는 수준으로 가지 않는 이상 합의점을 도출하려고 할 것이다. 현재는 개별 기업 이슈보다 시장 전체를 휘두르는 미·중 무역협상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Table with 4 columns: 발행인 김상우, 편집인 김상철, 논설실장 추창근, 편집국장 김덕현. Includes contact info and subscription rates.

고정식의 시사 인문학 철학자·칼럼니스트



잘못을 고치는 용기

사람은 여러모로 불안정한 존재다.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라도 아무런 오류나 잘못, 실수나 실패를 전혀 범하지 않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오류, 잘못, 실수, 실패, 이런 것이 반가울 수는 없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하는 것들이다.

불가피한 잘못, 쓸모도 있다

물론 이런 '잘못'에 긍정적 측면이 없는 건 아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격언도 있지 않은가. 그뿐이 아니다. 인간의 모든 학습은 다양한 시도와 그릇된 판단, 즉 시행착오(試行錯誤, trial and error)를 반복하면서 이루는 길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거의 일치된 견해다. 인간은 시행착오를 통해 배우고 철이 든다. 어떤 문제나 사태에 직면하거나 무슨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모르면 자연히 이런저런 시도를 하게 된다. 그리고 여러 시행착오의 결과로 우연히 성과를 거둔 행동을 반복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면서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철학자 칼 포퍼는 인간의 가장 자랑스러운 성취물인 과학 역시 바로 이런 시행착오의 산물과 다름없다고 정색을 하고 주장했다. 과학 이론의 발전이나 과학의 발전은 그의 표현을 빌리면 '억측과 반박'을 통해 이루어진다. 추측에 불과한 이런저런 가설을 우선 세운 다음에 규명하고자 하는 대상의 성질과 작용을 얼마나 잘 설명해 주는지 시험하고 반박하는 과정에서 과학 이론이 탄생하고 성장한다는 말이다.

공자 역시 '잘못'이 갖는 의미에 대해 말했다. 그가 "허물이 있으면 고치를 꺼려하지 말라[過則勿懼改]"고 말했음은 널리 알려져 있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고치지 않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큰 잘못[過而不改是謂過矣]"이라고도 했다. 사람인 이상 잘못을 범하지 않을 도리가 없지만, 더 큰 잘못은 이미 범한 잘못을 고치려고 하지 않는 데 있다고 봤다. 잘못을 고치는 데 주저하면 같은 잘못을 다시 범할 위험이 있을뿐더러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를 수 있으므로 고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공자의 이런 주장은 개인의 행동 지침이지 집단이나 조직의 대응방안은 아니다. 잘못을 고치는 것이 '군자의 바람직한 태도'라고 한정하는 데서도 이 점은 분명해진다. 그러나 그의 주문은 어떠한 집단의 지도자가 마땅히 지녀야 할 자세로 간주해도 무방해 보인다. 심지어 국가 통치자에게 요구되는 덕목으로 봐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듯하다. 공자의 표현을 흉내 낸다면, "(훌륭한) 리더십이란 (정책 추진이나 의사결정에서) 오류나 실패를 저지르면 바로잡는 데 게으르지 않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다.

공자가 말한 '잘못' 역시 도덕적 판단 대상이 되는 잘못이나 실수뿐만 아니라, 사실 인식이나 논리 전개 과정에서 생기는 오류와, 일의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실패에 두루 적용할 수 있겠다. 즉, 옳지

않은 행동, 잘못된 판단, 불합리한 의사결정, 엉터리 추론 등이 다 포함된다.

원로 대화·방송 대담 '솔직한' 답변

최근 몇 차례 문제인 대통령이 국가 원로들과 대화를 나눴고, 이 자리에서 국정 방향에 대한 원로들의 보다 구체적인 건의도 있었음이 보도됐다. 9일에는 취임 2주년을 맞는 방송 대담도 가졌다. 취임 이후 2년간의 국정 전반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과 자평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대통령은 여러 질문과 제안에 대하여 솔직하게 답변했다.

우선, 대통령은 "거시적으로 볼 때 한국 경제가 크게 성공한 것은 인정해야 한다. 이 부분에는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소득주도 성장론에 바탕을 둔 경제정책은 부작용이 다소 있지만 여러모로 긍정적으로 기여했으므로 그 기초를 바꿀 필요가 없다고 했다.

적폐청산에 관해서는 "적폐 수사나 재판은 우리 정부가 시작한 게 아니라 앞 정부에서 이미 시작했던 일"이고 현 정부가 "기획하거나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살아 움직이는 수사를 통제할 수도 없

이탈화법'으로, 마치 다른 나라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 고위직의 인사 문제도 한번 들여다보자. 굳이 무슨 까다로운 도덕성 기준이나 대통령 선거 당시 제시했던 인사 원칙이나 인사 청문회 보고서 채택 여부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취임 이래의 인사가 잘됐다, 그만하면 성공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잘못을 저질렀음을 우선 깨달아야

대통령의 국가 원로들과의 대화와 방송 대담을 통해 한 가지는 알게 됐다. 대통령의 판단에 따르면, 지금의 국정 운영 방식이나 국가정책 그 자체에는 별 문제가 없다는 점이다. 정책 추진이나 의사결정에서 시급한 개선이나 방향 조정이 필요한 오류나 잘못이 없다고 확신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는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실패를 비판함은 결국 대통령을 향해 별다른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고쳐야 한다고 막무가내로, 즉 공격을 위한 공격과 마찬가지로 보일 것이다.

잘못이나 오류, 실수나 실패의 가치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잘못을 선뜻 고치는 진정한 용기이다. 잘못을 방치하거나 되풀이함은 비겁이 아니면 안이함이다. 저질렀을 경우에 선뜻 인정하고 서둘러 바로잡으려고 노력할 때 개선과 발전, 심지어 비약의 길로 들어설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개인의 일상적 행동에서나 집단의 지도자로서 중대한 정책수립과 의사결정에서나 크게 다를 바 없다.

이런 오류나 실패를 고치는 용기를 제때에 발휘하려면, 이에 앞서 잘못을 잘못이라고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잘못을 성찰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흔히 표현으로 지혜라고 해도 될 것이다. 잘못이나 오류, 실패 등을 고치거나 만회하려면 이미 행한 일이나 가고 있는 방향이 그릇된 것임을 먼저 인식해야 한다. 잘못이 잘못임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잘못을 고치려는 것은 그 자체로 성립할 수 없는 요구다. 달리 말하면, 문제점의 수정이나 추진방향의 전환에는 오류나 실패라는 사실인식이 선행돼야 한다. 결국, 잘못을 고치는 용기라는 덕목에는 잘못을 성찰, 인식하는 능력이 당연히 포함됨이 분명해진다.

대체로 용기는 지혜보다 수준이 다소 떨어지는 덕성으로 여긴다. 철학자 플라톤도, 용기는 국가 수호자(전사)에게 요구되는 덕성으로서 국가 통치자에게 요구되는 덕성인 지혜보다 격이 낮다고 봤다. 그런데, 잘못을 고치는 용기는 잘못을 인식하는 지혜라는 덕성이 선행되지 않으면 아예 발휘될 수 없다는 점에서 지혜를 포함한다고 말해도 틀리지 않다. 이런 용기를 온전히 갖추기가 쉽지 않음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다. 훌륭한 인격자(군자)나 탁월한 리더십이 실제로는 희귀할 수밖에 없는 까닭을 새삼스레 깨닫게 된다.



고 통제해서도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또한, 대통령의 고위직 인사권 행사 역시 별 문제가 없으며 일부에서 꼬집듯이 편협하거나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대통령의 이런 현실인식은 상당히 의아하게 느껴졌다. 경제정책으로 말하면, 경제학자들을 비롯한 대다수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지금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기초를 바꿔야 한다고 계속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많은 언론은 거의 매일 현 경제정책의 부작용과 문제점을 열거, 분석하고 대안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기사로 채워지고 있는 게 엄연한 사실이다.

문 대통령의 현실인식: '별 문제없다'

적폐청산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 역시 고개를 가우뚱하게 한다. 적폐청산에 대해, 그 당위성에 공감하면서 지속적으로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부정적 측면이 작지 않으므로 보다 조심스럽게 이뤄져야 하고 이젠 끝내야 한다는 견해도 있을 것이다. 분명한 건 국민 대다수에겐 적폐청산이 문 대통령이 취임하여 주도적으로 강하게 추진해온 과제로 보이는데, 대통령은 시쳇말로 '유체

시설

고용 상황 최악, "경제 성공하고 있다"는 정부

고용시장이 다시 얼어붙고 있다. 2월과 3월 20만 명 이상씩 늘어났던 취업자 증가폭이 4월 10만 명대로 주저앉았고, 실업자와 실업률 모두 최악의 수치를 나타냈다. 정부가 재정을 쏟아부어 계속 공공일자리를 늘리고 있는데도 상황은 나빠지기만 하고 있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서 취업자수는 1년 전보다 17만 1000명 늘었다. 2월 26만 3000명, 3월 25만 명 증가했다가 쪼그라들었다. 실업자는 8만 4000명 불어난 124만 5000명, 실업률도 0.3%포인트(p) 오른 4.4%를 기록했다. 실업자수와 실업률 모두 2000년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0.8%p 상승한 11.5%, 체감 실업률을 나타내는 확장실업률도 25.2%에 달해 역대 최고다.

고용의 질 또한 악화일로다. 업종별로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12만 7000명으로 가장 많이 늘었고, 교육서비스업(5만 5000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4만 9000명)이 증가했다. 보건·사회복지서비스는 정부가 세금을 투입하는 단기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반면 인간의 질 좋은 제조업 고용은 5만 2000명이 줄어 작년 3월 이후 13개월 연속 감소했다. 도·소매업(-7만 6000명), 사업시설 관리·지원 및 임대서비스업(-5만 3000명), 금융·보험업(-4만 6000명), 건설업(-3만 명) 등도 크게 줄었다. 경기 부진과 투자 위축, 고강도

부동산 규제, 최저임금 과속 인상의 여파다.

연령별로도 60세 이상 취업자가 33만 5000명이나 늘었다. 이 또한 세금으로 만든 알바성 노인일자리 사업의 효과다. 하지만 경제활동의 중추인 30대(-9만 명)와 40대(-18만 7000명)는 27만 7000명 감소세를 보였다. 30·40대 취업자는 2017년 10월부터 19개월째 마이너스다. 고용 개선을 위해 정부가 계속 막대한 재정을 퍼붓고 있지만, 공공일자리로 취업자수를 잠시 늘릴 뿐 거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대책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30·40대 고용과 제조업 일자리가 장기간 줄어들고 있는 추세는 앞으로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을 예고한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산업 기반 붕괴와 경쟁력 약화로 민간기업 고용창출력이 쇠퇴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경제의 하방리스크만 가득하다. 수출은 계속 줄어들고 투자는 살아날 줄 모른다. 확장(擴張) 양상의 미·중 무역분쟁은 수출에 기댄 한국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가져올 것인 우려가 높다. 실업자가 쏟아지고 문 닫는 기업이 속출하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성공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산업 현장에서는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반응이다. 정부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이 이러니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 획기적 투자촉진 방안 없이는 경제도, 고용시장도 살리기 어렵다.



사수(死守)

일상으로 사용하는 말로 여기기에는 왠지 섬뜩한 말들이 아무렇지 않게 사용되고 있다. '관세폭탄', '무역전쟁'이라는 말 정도는 이미 일상화하여 '전쟁', '폭탄'이라는 말이 서슴없이 사용되고 있다. 최근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민생폭탄', '세금폭탄', '해고폭탄'이 마구 내려온다고 하며 '폭탄'이라는 말을 거꾸 사용하였다. 야당 대표의 입장에서 보자면 정부가 하는 일이 못마땅하니까 비판의 차원에서 그렇게 '폭탄'이라는 말을 했겠지만 어쨌든 고운 말이나 바른 말은 아니다. 꼭 이렇게 말을 강하고 힘있게 해야만 설득력을 갖는 것일까? 말은 최대한 부드럽게 하면서도 정확한 근거가 있고 알찬 내용이 있으며 객관적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철학과 소신이 있을 때 더 설득력을 갖는 게 아닐까?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힘찬 말을 쏟아낸 때문인지 우리 사회 전반에 힘찬 말들이 넘치고 있다.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집회를 갖는 사람들은 결핍하면 '사수'라는 말을 사용한다. '○○권 사수',

'○○법 사수' 등을 외치다 보니 심지어는 '생존권 사수'라는 말도 나오고, 어느 방송사에서는 간을 잘 관리하지는 건강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간을 사수하라"는 표제를 내걸기도 했다.

'죽을 사', '지킬 수'를 쓰는 '사수(死守)'는 '죽음으로써 지킴', '목숨 걸고 지킴'이라는 뜻이다. 살기 위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놓겠다니 어리둥절하다. 건강하게 살기 위해 간을 잘 관리하지는 프로그램에서 '죽음으로써 간을 지켜라'라고 하니 황당하기 이를 데 없다.

말이나 행동에는 '회전곡선'이 있어야 한다.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붙여 빠져나올 틈이 없게 할 게 아니라, 돌아서 빠져나올 여지를 남겨둬야 한다는 뜻이다. 여지도 여유도 없이 몰아붙이는 언행으로는 결코 타협점을 찾을 수 없다. 死守, 죽음으로써 지키자는 말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죽어야 할 사람이 많다는 뜻이 아닌가? 어찌 섬뜩하지 않겠는가!

김병기 전북대 중문과 교수

아침에 만나는
이투데이
경제가 더
가까워집니다





“ 요즘 우리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게 많아졌다
어제는 발레리나, 오늘은 화가?
어떤 꿈이든 마음껏 키우렴 ”



KBot^{SAM}
 인공지능 로보어드바이저와 자산전문가가 제안하는 맞춤형 포트폴리오

모두의 KBot ^{SAM} 기본 포트폴리오	전문가 KBot ^{SAM} 개인 맞춤형 포트폴리오
<p>비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식비중 46.73% 채권비중 23.22% 유동성비 8.21% 채권신용종류 15.84% 리밸류종류 6.00% 	<p>비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식비중 58.00% 채권비중 5.00% 채권신용종류 12.00% 채권신용종류 12.00% 리밸류종류 13.00%
<p>주안종류 장기투자 리밸류종류</p> <p>가입하기 상세보기</p>	<p>주안종류 장기투자 리밸류종류</p> <p>가입하기 상세보기</p>

로보어드바이저와 금융전문가의 자산관리서비스 케이봇 샘

천방지축 아이들과의 순간순간이 소중한 당신
복잡한 자산관리는 KB에게 맡기고, 당신은 행복한 일상만 즐기세요

누리세요, KB가 만드는 새로운 금융생활

세상을 바꾸는 금융 | 고객님의 행복과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